metro®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News p/3



"조선·중앙이 사이비언론"

News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재벌 막대한 광고·협찬 뒷배경으로 언론 사실상 장악
미국 등에선 상상할 수 없는 단체… 언론자유 토대 위협

데스크 시각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2일 한국광고주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를 본 뒤 한 변호사가 건넨 말이다. 광고주협회가 메트로신문을 대표적인 사이비 언론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자 격려차 꺼낸 말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다.

그는 "미국에서는 광고주협회라는 조직 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본의 속성상 무한팽창을 계속하기 마련인데 방해가 되는 비판언론을 당연히 제거하고 싶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그는 또 "대자본의 이익단체인 광고주협회는 존재 자체가 언론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요소"라며 "재벌의 잘못된 행태에 눈 감는 언론은 키워주고 비판언론을 제거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위협요소인 광고주협회의 활동을 법률로 제한해야 할 때가 왔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실제 미국에는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한국의 광고주협회와 같은 조직은 없다. 일본에도 한국의 전경련과 같은 경단련이 있지만 역시 광고주협회와 같은 조직은 없다. 최근 비판언론을 짓뭉개기 위해 기업광고를 끊자고 머리를 모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들도 단지 "경단련을 움직여보자"고 말했을 뿐이다. 한국광고주협회에는 202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재벌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힘 있는 기업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담합해 재벌에 비판적인 언론을 노린다면 이를 견뎌낼 매체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자본의 속성을 감안할 때 광고주협회의 존재 자체가 언론 자유의 근본 토대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최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제안한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광고주협회가 포털에 요구해 구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정책비서관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비 언론은 포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광고주협회 쪽의 입김이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는 나아가 이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제휴평가위는 이른바 사이비 언론과 어뷰징 매체를 포털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여기서 사이비언론은 주로 기업 광고 협찬과 관련있는 개념이고, 광고주협회는 이 사이비 매체를 가려내는 심판자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광고주협회가 검찰이나 법원에 준하는 언론 매체 판정기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대자본에 의한 언론통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광고주협회는 이미 대자본을 뒷배경으로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이른바 '나쁜 언론'또는 '유사언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목을 쳐낼 언론을 선택해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메트로신문도 '살생부'에 올랐다. 광고주협회는 지난 1일 '2015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 조사 결과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트로신문을 가장 유사언론행위가 심한 사이비언론으로 지목했다.

재벌로부터 거액의 광고·협찬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실 검증도 없이 광고주협회 보도자료를 베껴쓰며 메트로신문을 사이비 언론으로 낙인찍는 작업에 조력자 역할을 했다. 광고주협회가 언론 간 자유·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는 실제 증거다. /송병형 정치부장

한줄 News

- ▲ 세계 2위의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 도중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설전이 계속되자 퇴장했다.
-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메트로신문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속하고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닷새만에 1명 추가됐다.
- ▲ BBK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교도소에서 접견을 통제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 ▲ CCTV를 세월호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1일 재항고했다.
- ▲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 피해자들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 ▲ 올해 1분기 대기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 ▲ 스마트폰 보편화로 엄지족들이 늘어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최대인 45조원을 돌파했다.
- ▲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38개 기업의 지난달 30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이 지난 1분기 말 순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4개월 만에 3.3㎡당 1700만원을 회복했다.
- ▲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TV인 SUHD TV 라인업과 판매 확대에 나선다.
- ▲ 현대자동차는 2016년형 쏘나타를 2일부터 판매한다.
- ▲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삼성전자, 애플,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 네이버는 온라인상 관심사에 대한 이용자 반응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댓글을 실시간 검색에 반영하기로 했다.
- ▲ 포스코ICT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역무자동화시스템(AFC)을 수주했다.
- ▲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 HDC 신라면세점은 2일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앞두고 막판 승부수를 띄웠다.
- ▲ 치킨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광고에 대해 네티즌의 비판이 잇따르자 공식사과했다.
- ▲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의 추신수가 3경기 연속 홈런을 쳤다.
- ▲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
- ▲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권한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리=임은정기자

"삼성물산 주주, 합병 반대해야"

글래스 루이스 "제일모직 주주들에게만 이익"
ISS·기업구조원·자사주 의결권 등 변수 주목

세계 2위의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기관투자자서비스) 발표를 앞두고 나온 의견이라 주목된다.

1일(미국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합병에 따른 전략적 이점이 의문스럽고 합병의 재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글래스 루이스는 보고서에서 "합병계약의 보호장치가 퇴행적이고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병이 성사될 경우, 삼성물산 주주들은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는 반면 제일모직 주주들에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글래스 루이스는 1000여개의 기관 투자자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다. 여기에 더해 3일 오후 발간될 ISS의 자문 보고서 내용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ISS의 보고서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ISS 보고서가 삼성에 불리하게 나오면, 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의결권을 결정하는 외국 투자자들의 지분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엘리엇을 포함한 삼성물산의 외국인 지분은 33% 정도다.

아울러 한국기업구조원(지배구조원)의 판단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배구조원은 이번 주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찬반여부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원에 합병사안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원의 판단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삼성물산 지분 10.15%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합병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자사주다. 법원은 엘리엇이 신청한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10일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인 KCC에 매각했다. 현재 KCC를 포함한 삼성의 확실한 우호지분은 19.95%로 파악된다.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삼성은 표 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임은정기자 eunj71@metroseoul.co.kr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 김태호 최고위원(왼쪽)이 발언을 시작하자 김무성 대표가 "회의 끝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욕설 난무… 개판 된 새누리

'유승민 거취' 친박-비박 설전
김태호, 끈질긴 사퇴 요구에
김학용 "개XX가" 막말 뱉어
최고위, 난장판 속 결국 파행

청와대의 유승민 찍어내기 2단계 작전(유승민 업무 배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사퇴 공세를 이어가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수준 이하의 충돌로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발언을 이어가자 "그만해"라는 평어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이 말을 이어가자 "회의 끝내겠습니다. 회의 끝내"라고 말했고, 김 최고위원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맘대로 해"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벗어났다.

김 최고위원은 사퇴 요구를 함께 하던 이인제 최고위원의 "고정해"라는 만류에도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라고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급기야 서 최고위원이 김 최고위원의 팔을 잡고 말리기까지 했다.

이 같은 모습에 김 대표의 측근인 김학용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면서 "그만해, 김태호 저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했고, 김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참석자들을 향해 "사퇴할 이유가 왜 없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라고 외쳤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향해 "개인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정말 존경한다. 매일 아픈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나도 고통스럽다"며 "당과 나라를 위해서 이 모두를 위해서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현안 발언을 준비했던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에 격분해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했던) 긴급최고위를 한지 일주일이 지났나 열흘이 지났나"라며 "계속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는 게) 당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고 유 원내대표가 합리적 결정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평소 정치공세와는 거리가 먼 원 의장은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연평해전 기념일에 유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를 하는 자리에서 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해 "개죽음"이라고 해 논란을 불렀다. 또 최고위원 선출 이후 김 대표를 비판하며 뜬금없는 "사퇴" 선언으로 지도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를 두고 "홍어X"라고 말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광고주협회 보도자료 베껴 쓴 조선·중앙

메트로신문을 전경련차원 '왕따' 타깃으로
확인 전화도 없이 '사이비언론'이라고 매도



'유사언론 1위는 '메트로',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에 메트로신문'.

2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게재된 메트로신문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이들 기사는 전경련 예하 한국광고주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2015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 조사결과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날 광고주협회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매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미디어스 등이다. 기사 작성과정에서 메트로신문측에 확인전화를 한 매체는 미디어스 한곳 뿐이었다.

조선일보는 '대기업 87% "사이비언론 피해 입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고주협회는 "가장 많은 응답자(33%·복수 응답)가 유사 언론으로 지목한 매체는 무료 일간지인 '메트로'"라고 밝혔다. 곽혁 광고주협회 상무는 "메트로가 올 들어서만 60차례에 걸쳐 1면에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기업 최고경영자(CEO) 사진을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가 이날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낀 내용이다.

이 신문은 이어 "메트로는 1995년 스웨덴에서 창간된 무료 신문으로 세계 20개국에서 제호(題號) 사용 계약을 맺은 제휴사들이 각국 언어로 발행하고 있다. 한국어판은 '메트로서울'이 2002년 5월 창간했고 한때 60만부까지 부수를 늘렸으나 최근 발행 부수가 3만부 아래로 떨어지고 2013년 38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 부분은 조선일보 기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쓴 것이다. 메트로신문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자 한 의도가 뚜렷하다.

'3만부 아래' 등을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메트로신문측에 전화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의 기회를 준 적은 없다.

중앙일보는 '광고주가 뽑은 나쁜언론에 메트로신문'이라는 좀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이번 조사에서 87개 기업이 192개 매체에 대해 '유사언론행위 매체'로 꼽았다. 가장 많은 표(복수응답가능)를 받은 곳은 33%가 선택한 메트로 신문이다.광고주협회에 따르면 메트로신문은 올해 들어 1면에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기업 최고경영자(CEO) 사진을 노출시키는 등 총 60건의 기업 관련 부정 기사를 게재했다"고 했다.

역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광고주협회의 말만 듣고 쓴 기사다. 중앙일보 기자도 당사자인 메트로신문에는 어떠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중앙은 나아가 광고주협회가 쓰지도 않은 '나쁜 언론'이라는 개념까지 갖다붙이면서 메트로신문을 노골적으로 폄하했다.

동아일보 역시 보도자료를 베껴서 기사를 쓰긴했지만, 메트로신문 등 특정 언론사의 실명을 기사에 적시하지는 않았다.

취재결과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조사내용이 광고주협회의 발표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강세준 메트로신문 편집국장은 "광고주협회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가 재벌 비판 기사를 많이 쓰고, 재벌 얼굴 사진을 크게 쓴 것이 '유사언론행위'라는 것인데, 조선이나 중앙처럼 보도자료나 베끼고 결과적으로 버젓이 오보를 해놓고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이비언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위등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조선, 중앙과 우리 중 누가 사이비언론인 지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메르스 추경 15조원… 취지에 맞나

부산에 도로놓고 발전소 지원하고

당정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극복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이 과연 본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세출 사업 하나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 협의를 했다"며 "시기와 규모만 못 박은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순옥 의원(새정치연합)이 산업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라고 했다.

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677억원 △부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6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70억 원 등 메르스·가뭄 대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사용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는 왜 15조 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메르스 사태나 가뭄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수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해규모, 보상 방법론, 세제혜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2.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3.1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돈이 14조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의미라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 추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

최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5년 추경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르스 피해규모를 정확히 수치화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메르스 회의 자료 배포를 담당한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 파트 사무관은 2일 메르스 관련 피해규모를 묻자 "어제(1일) 메르스 회의 이후 발표한 6월 4주차 자료를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박 대통령 '배신정치심판' 발언 검증대에

野,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무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인물 특정 문제 △선거 임박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등 5가지를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꼽았다. 이 5가지는 지난 2004년 3월 3일 선관위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2004년 2월 24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을 때 적용했던 기준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박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퇴진 논란이 일고 언론 보도에도 유 원내대표가 지목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라는 부분을 인용, 유원내대표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나왔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자 직무와 관련된 발언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입법부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국무회의에서 비난하고 국민에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정원기자

成리스트 6인 ‘무혐의’ 李·洪 ‘불구속 기소’

檢 ‘특사 개입’ 노건평씨는 시효 지나 처벌 불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2일 밝혔다.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손진영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이 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4월 12일 이후 82일 만이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노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H건설사는 경남기업과 2007년 5월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 하도급 대금은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 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28일 특사 대상자 74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 전 회장은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하루 뒤인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비리 경찰 80% 징계부가금 ‘미납’

비리 경찰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최근 5년 동안 2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횡령·유용으로 적발되면 징계의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게 하는 제도로 2010년 4월 시행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징계부가금은 총 21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중 79.6%인 17억원은 미납 상태다.

또 지난해 부과액은 3억4000만원이지만 82.5%인 2억80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특히 고액을 부과 받은 중징계자들의 미납이 심각했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 전원은 징계부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지난해 금품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은 8425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최고 고액 미납자로 기록됐다.

이들 고액 미납자들 상당수는 수감돼 있어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경찰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과 재산 압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압박…강원 도민 뿔났다' 정부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강원 교육이 위기에 처하자 2일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강원도내 65개 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체포

현역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건설업체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일 야당 중진 의원 P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기 남양주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유모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전날 오전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P씨와 같은 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냈다. 검찰은 유씨가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와 정관계에 로비하면서 정씨와 P씨의 동생을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성격과 구체적 사용처를 캐묻고 있다. /연미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BBK 사건’ 김경준,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교도소 접견 통제는 부당



김경준씨가 BBK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위해 2008년 1월 30일 오후 서울 역삼동 이명박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BBK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49·사진)가 교도소에서 접견을 통제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상시적, 일반적으로 교도관이 김 전 대표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했다"며 "이는 형집행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접견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상시적으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 조치를 유지하게 된 사유가 분명치 않다"며 "접견제한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도소장의 수년에 걸친 24시간 독거 수용 조치에 대해선 "김 전 대표가 휴업일과 야간·주간에도 독거 수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독거수용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BBK 주가조작 사기'에 연루돼 2009년 징역 7년 벌금 100억원을 확정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천안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뒤 2010년 3월 10일~2011년 7월 14일 서울남부교도소장이 모든 접견 시 교도관 참여와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과 서신검열 조치는 자의적인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홍원기자

경찰, 세월호 집회 CCTV영상 제출 '불복'

警,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에 재항고
"증거보전 신청인에 대한 소명 필요"

교통정보수집용 CC(폐쇄회로)TV를 세월호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에 위법이라는 이유로 지난 1일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심과 항고심 법원이 결정한 CCTV 영상 제출 요구에 불복한 것이다.

2일 서울경찰청은 재항고장을 통해 "CCTV영상을 제출하라는 항고심 결정에 대해 법원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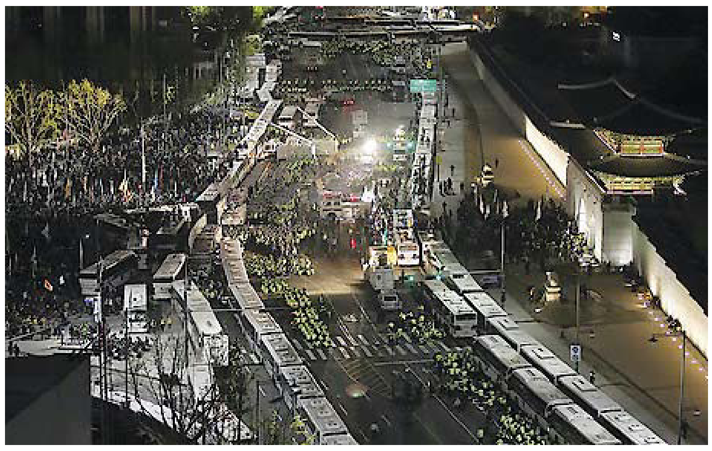
앞서 참여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박근용씨는 지난 4월 18일 집회 중 감시 의혹을 제기, 소송에 앞서 영상 소실이 우려됨에 따라 법원에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이 법조항을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해 서울경찰청에 항고 빌미를 제공했다. <본지 5월 21일자 보도>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4월 18일 13시30분~22시30분까지 녹화 또는 녹음된 비디오테이프, 디지털파일, 컴퓨터자기디스크 기타 영상 또는 음성 매체를 7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한 뒤 같은달 24일 경찰청에 해당 결정문을 송달했다.

서울경찰청의 재항고 제기 근거는 ▲증거 보전 사유 소명에 대한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 ▲신청취지 추가 인정 ▲증거보전 신청의 정당한 이유 없음 등 3가지다.

서울경찰청은 영상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을 근거로 "증거 보전 신청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메트로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의 일부 영상은 지난 5월 2일 삭제됐다. 증거보전 신청의 가장 큰 이유인 소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사진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검증목적물 제출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이 추가된 것도 법리오해 위법이 있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제334조를 들어 증거보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경찰청의 주장이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영상에 대한 증거 가치와 필요성은 본안에서 판단할 일이지 피신청자(경찰청)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증거보전신청은 본안에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소실 우려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본지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의 일부 영상은 지난 5월 2일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보전 신청의 가장 큰 이유인 소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시기는 1심 법원이 영상 제출 결정을 내린 이후인데다 30일간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경찰청 내부 지침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 관계자는 "종로서와 남대문서는 서버 용량의 한계가 있다. 종로서는 14일치, 남대문서는 16일치가 저장(5월 시점)되고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라며 "1심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송달문을 5월 4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이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항고심 재판부도 멸실될 개연성을 보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계기로 오히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경실련 "'成 리스트' 검찰, 박근혜 정부에 면죄부 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독립된 특검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이 또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부실수사의 우려가 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역시 박근혜 정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사의지 조차 찾을 수 없었던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은 리스트 6인에 대한 수사결과는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결정했다"며 "성완종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한 당사자는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또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인물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검찰은 리스트 6인에 대한 소환은커녕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며 "리스트 6인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시점에 검찰은 비밀장부는 없다고 공표했다. 사실상 수사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홍원기자 hong@



입촌식 입장 한국 선수단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U대회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한국 선수단 입촌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선수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法, 'SKT 통신장애' 손배소 기각

피해자 측 "보상액 6000원, 항소할 것"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 피해자들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이들은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정모씨 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심리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켜 가입자 약 560만명의 전화가 불통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 진 뒤 대리기사 기명종 씨가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가입자 확인 모듈'(HDR)이 고장 나며 생긴 사고였다.

가입자들은 전화 수신·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도 사용할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불통'이 돼 전국 수백만 명의 저녁이 마비됐다.

사고 이후 SK텔레콤은 560만명에게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기사 11명, 퀵서비스 기사 2명 등 원고 23명은 업무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20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선고 직후 원고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6시간이나 전화가 불통이 됐지만 저는 겨우 6000원을 받았다"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상이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대림·GS건설 비자금 조성 포착

檢, '포스코 비리' 수사 중 증거 확보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하도급 업체 흥우산업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흥우산업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흥우산업이 대림산업·GS건설과 거래하며 포스코건설에 했던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 비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림산업과 GS건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규모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등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4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준 혐의로 우모(58) 흥우산업 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이철승(57) 흥우산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받은 뒤 차액을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상납,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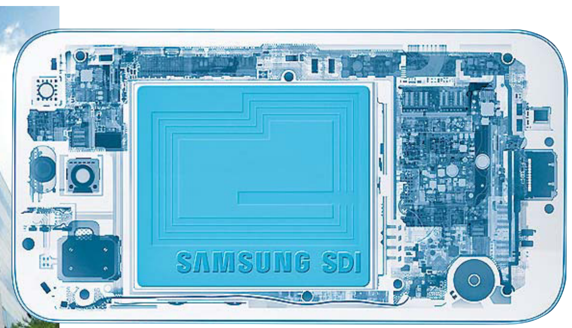
검찰은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에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미란기자

갤럭시S6 판매 부진…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소형전지사업 비중 커
2분기 실적개선 먹구름





삼성SDI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배터리(소형 2차전지) 이미지. /삼성SDI 제공

삼성SDI의 전지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소형 2차전지 부문은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를 비롯한 주력 제품의 판매가 부진해 사측이 예상했던 2분기 실적개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상당수 증권사들은 일제히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낮췄다. 삼성SDI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3% 줄어든 1조9000억원, 영업이익은 38.8% 감소한 184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목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주로 이차전지 부문"이라며 "소형전지는 각형 전지 가동률 하락과 고객사 판가 인하 영향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SDI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조8659억원, 영업이익 68억원, 당기순이익 646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분기 매출액 1조9101억원, 영업이익 372억원에서 각각 442억원(2.3%), 304억원(81.7%)씩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1288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소형·중형·대형전지사업으로 구성된 삼성SDI의 전지사업군은 올해 1분기79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분기 8592억원에서 7.5% 감소했다.

지난 4월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은 올해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의 목표 판매량을 7000만대로 잡았다. 하지만 최근 IT매체 EE타임스는 도이체방크의 월스트리트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삼성 갤럭시S6 시리즈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4500만대 판매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시장도 불안하다. 애플, 화웨이, 샤오미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시장 역시 애플이 두터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공급되는 삼성의 저가폰 시장마저도 현지 제조사와 중국제조사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삼성SDI 측은 "전지사업 부문은 소형전지 사업 비중이 제일 크다. 갤럭시 S6 시리즈 판매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 예상은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온라인 쇼핑 거래액 45조 돌파

지난해 모바일 쇼핑은 전년보다 126.7% ↑

스마트폰 보편화로 엄지족들이 늘어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최대인 45조원을 돌파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일 발간한 '2015 국내외 물류산업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대비 17.7% 증가한 45조302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온라인 쇼핑 규모는 2005년과 2009년 각각 10조 원,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5년만인 2013년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추세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모바일 쇼핑 부문은 지난해 14조8698억원을 기록,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13년 대비 126.7% 급증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에 힘입어 국내 택배시장 전체물량은 전년대비 7.8% 성장한 16억 2320만개, 매출액은 6.4% 늘어난 3조 9757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상품은 화장품이다. 온라인 쇼핑 상품군별 매출액(서비스 제외) 분석 결과 화장품 매출이 전년대비 27.1% 늘어난 2조6688억원을 기록,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자동차·생활용품(21.0%, 5조1755억원), 통신·가전(20.9%, 4조9622억원), 의류·패션(17.0%, 7조3464억원)이 뒤따랐다.

대한상의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도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지칠 기색이 없어 보인다"며 "전통시장이나 지역특산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판매방식이 보편화됐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스마트폰 앱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꼼꼼하게' 2일 오후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선별진료소 확장 공사 작업과 관련해 의료 기기 및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방호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날 삼성서울병원의 자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에서 간호사 1명이 1차 양성이 나와 확진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집 값 상승… 고소득층 소비만 늘렸다

한銀 '경제분석' 조사 결과
하위 소득자는 변화 없어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이마저도 고소득층만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 전문연구원 등 3명이 2일 한국은행 발행 계간지인 '경제분석' 최근호에 게재한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보유자 13만 가구를 상대로 주택가격 변화와 소비 간의 관계를 소득수준과 연령, 보유 부채 정도에 따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평균적으로 소비에 플러스(+)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면서 근거로 제시한 '부의 효과'(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

하지만 이런 소비증대 효과는 고소득층과 같은 일부 계층에 국한됐다. 소득 구간별로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과 소비 간 플러스 상관관계는 조사대상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연소득 4570만원 이상인 소득 구간에서만 나타났다.

그 아래 소득 구간(2540만원 이상 3260만원 미만, 3260만원 이상 4570만원 미만)인 대출자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지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 정도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령대 별로는 대출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오를 때 소비를 많이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고령층은 집값이 오르면 소비를 늘렸지만 결혼적령기(31~35세)의 대출자들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올라도 향후 주택교체에 대비해 오히려 소비를 줄였다.

젊은 층은 집값이 오르더라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을수록 집값이 올라도 씀씀이를 늘리는데 인색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5% 미만인 대출자는 집값이 1% 오를 때 소비를 0.083% 늘린 반면, DTI가 75% 이상인 대출자는 집값 상승이 오히려 소비를 감소시켰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켰지만 지갑을 여는 가계는 일부에 국한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연구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보다는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 더 유용함을 의미한다"며 "소득계층별로 소득과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정책효과가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메밀꽃 필무렵
봉평촌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메밀꽃 필무렵
봉평촌
알뜰부부 여름 장 보기 원칙!
첫째,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은 국내산 메밀이다.
둘째, 구수한 강원도 메밀요리 맛 그대로다.
셋째, 정직하게 만들어 믿을 수 있다.
2014 대한민국식품대전
대상
소비자품평회우수상품부문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이
2014년 대한민국 식품대전 소비자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산
메밀 사용
메밀차
메밀 소바
메밀 비빔막국수
메밀 막국수
메밀 국수
메밀 부침가루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은 우리 몸에 좋은 국내산 메밀만을 고집하여 맛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한 제품입니다.
www.bongpyung.com
메밀꽃필무렵 봉평촌
검색
최양락, 팽현숙 부부
메밀 부침가루
메밀 부침가루
[주]봉평농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등길 18-10 Tel 033.333.8942

일부 금융사, 순자산가치보다 시총이 낮아

100대 기업 중 38곳 저평가
우리은행·하나금융 등 포함
저금리·저성장에 수익 하락
대내외 불확실성 작용 요인

금융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시총과 지난 1분기 말 순자산 가치를 비교한 결과 38개 기업이 저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배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38%나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PBR은 1배를 기준으로 1배 이상일 경우 기업의 청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뜻이고 1배 이하일 경우에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카드 등 우량 금융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37.0%로 시총 100대 기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 순자산 가치는 17조9000억원인데 반해 시가총액은 6조6280억원에 불과했다.

하나금융과 기업은행의 경우 각각 40.0%, 49.5%로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밖에 KB금융그룹(51.4%)과 삼성카드(67.1%), 신한금융지주(67.3%), 한화생명(74.5%), BNK금융지주(74.5%) 등의 시가총액도 순자산 가치의 50~100% 사이에 머물렀다.

금융사들의 저평가 요인에는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금융업 전반의 수익성 하락과 그리스 사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감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리은행 민영화와 하나·외환은행 통합 등 각 금융회사의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은행주 평균 PBR은 한때 0.48배까지 하락했다. 이에 대해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6월 금통위 전후로 형성됐던 금리 베팅 시각이 약화된데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세 지속 우려, 내수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메르스 사태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최근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PBR은 0.50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다만 포스코플랜텍 워크아웃 등 악재 요인들이 주가에 어느정도 상당폭 반영된데다 은행들의 2분기 표면 실적도 예상보다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의 투자심리 위축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은행 최선호주로는 기업은행을 꼽으며 "성장률과 NIM이 양호한데다 탁월한 수익성 대비 0.55배에 불과한 현 PBR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낮은 PBR이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그간 은행을 둘러싼 금리리스크 등은 상반기 동안 주가에 이미 반영됐고 올 하반기는 가계와 대기업의 부실화 우려 경감과 대손비용 축소, 금리반등 이후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호주로는 우리은행과 BNK금융지주를 제시하며 "우리은행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저평가 수준에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우려는 지속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펀더멘털 개선의 여건이 높은데다 배당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꼽았다. 이어 "BNK금융지주의 경우 경남은행 인수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조기통합 불확실성 우려가 있던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법원의 가처분 취소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합병중지 가처분 조치를 취소했다"며 "통합 추진 재개는 PBR 0.43배, PER 7.4배의 지나치게 낮은 주가에서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바닥권인 금리와 NIM, 양호한 자산건전성, 애초 우려보다는 완화 중인 자본비율 규제,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지주)의 주가지표 하락을 초래했던 규제 부담이 사라졌다"면서 "주가지표는 이 같은 흐름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신한은행

'더 프라우스' 2관왕

신한은행은 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5 더 프라우드(THE PROUD)'에서 2개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더 프라우'는 대한민국명품, 고객가치최우수상품, 주목받는 신상품 등 세 상품부문별로 상품경쟁력과 명품성, 대표성, 트렌드, 리더십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날 신한은행의 '신한미래설계'는 고객가치최우수상품 은퇴설계 서비스부문 1위로 선정됐다. '신한 PWM'는 대한민국명품 PB부문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종합적이고 최적화된 은퇴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지난 5월 전국 781개 미래설계센터를 확대 오픈했다. 아울러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은퇴상담 전문과정을 수료한 '미래설계컨설턴트'를 배치했다.

또한 은퇴설계시스템인 S-미래설계를 통해 고객별 금융거래 특성과 필요자금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특히 지난 2011년 국내최초 은행과 증권의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PWM센터를 처음 개점한 이후 총 26개의 PWM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11년 출범한 복합금융점포인 신한PWM을 통한 은행과 증권의 다양한 상품 제공과 미래설계센터를 통한 은퇴설계 서비스 등 최적의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한은행만의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영업 개시
신한카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자사 1호 해외법인인 '신한파이낸스' 개소식을 갖고 현지 영업을 개시했다.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오른쪽 세번째)과 신한파이낸스 최낙주 법인장(오른쪽 네번째), 조용천 주카자흐스탄 대사(오른쪽 첫번째)가 7월 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신한파이낸스 개소식에 참석해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테이프 컷팅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하나-외환銀 노조, 2·17 합의서 수정 협상 재개

외환銀 임직원들 '대화 촉구' 릴레이 성명

하나·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노사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금 감면문제와 릴레이 성명서 등을 통해서다. 특히 9월까지 통합이 안될 경우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기 어렵다며 압박을 가했다.

이 가운데 노사가 '2·17 합의서' 수정 협상을 재개함에 따라 그간 엉켜있던 통합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하나금융과 '2.17.합의서 수정' 협상을 재개하며 "쌍방이 각자 상대방 초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절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 노사, 합의서 수정 협생 재개

협상재개는 전날 노동조합의 4대 4 대화 제의를 하나금융지주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앞서 노사는 종전의 2.17. 합의서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절충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외환 노조 측은 협상 중단에 대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상대방의 초안에 대한 불신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2개의 초안을 절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각자 자신의 초안만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시했다.

노조는 또 하나지주에 공문을 보내 "최근 임원과 부서장을 통해 직원들을 동원해 사내망에 글을 올리도록 강압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직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외환은행 사내인트라넷을 통해 대화를 촉구하는 임직원들의 릴레이 성명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에 관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양행의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수십여 개의 본점 부서를 필두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일선 영업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하나·외환은행, "세금 감면문제·대화촉구" 압박

한편 하나은행은 이날 "올 9월 말까지 통합이 안될 경우 외환은행은 존속법인이 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배임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하는게 하나은행의 결론이다.

아울러 통합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2,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나은행 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하나-외환은행이 9월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754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통합비용을 아낄수록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GS건설, 평택에 '자이 미니신도시' 만든다

| 분양 돋보기 |

'자이 더 익스프레스' 조성 5708가구 중 이달 1차 공급

삼성·진위LG산업단지 등 주변호재 풍부 수요자 관심

GS건설이 경기도 평택에 '자이 신도시'를 조성한다. 단지 주변으로 지난 5월 100조원 규모의 삼성반도체가 착공에 들어갔다. 진위LG산업단지 조성(예정), KTX 개통(예정),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가 풍부해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평택 인구 늘면서 집값도 상승세

GS건설이 경기도 평택 동삭동·칠원동 일원 동삭2지구 5개 블록에서 선보이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는 단일 브랜드로는 평택 최대인 5705가구 규모다. 내년까지 3차례에 나눠 분양되며 이달 1차 1849가구가 공급된다.

1차는 지하 2층, 지상 25~29층, 18개동, 전용면적 ▲59㎡A 623가구 ▲59㎡B 129가구 ▲72㎡ 311가구 ▲84㎡A 558가구 ▲84㎡B 114가구 ▲98㎡A 97가구 ▲98㎡B(PH) 6가구 ▲104㎡A(PH) 7가구 ▲104㎡B(PH) 2가구 ▲111㎡(PH) 2가구로 이뤄졌다.

아파트가 들어설 평택시는 고덕삼성산업단지·진위LG산업단지를 비롯해 10개 산업단지가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곳이다. 일자리가 늘다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몰리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39만9475만 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5월 45만3437만 명까지 증가했다. KTX 평택지제역 신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 미군기지 등의 호재에 힘입어 인구는 5년 내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인구가 느는 만큼, 집값도 어김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평택 아파트값 상승률은 7.6%다. 전국(6.3%), 경기(6.4%)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 소사벌지구에서 공급한 아파트에는 2000만~3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98타입 거실 이미지. /GS건설 제공

정광록 GS건설 분양소장은 "오산·안성·화성 인근지역 수요자뿐 아니라 수원·강남수서 등에서도 문의가 많다"며 "평택이 지역위주 시장에서 벗어나 광역수도권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 최초 6베이 펜트하우스

오는 10일 오픈 예정인 견본주택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1800여 가구의 대단지 모형도가 설치되고, 59A·72·84A·98 등 4개 타입 유닛에는 살림살이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 중 신혼부부, 3인 가구에 인기가 많은 59A타입은 일반 아파트보다 넓은 드레스룸을 선보였다. 수납공간이 부족한 소형아파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72타입은 주방 다용도실과 함께 팬트리 선택형 평면을 선보였다. 팬트리를 대형 드레스룸 또는 팬트리와 드레스룸으로 나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84A타입 역시 알파룸을 '알파룸+팬트리' 또는 '알파룸+드레스룸' 평면 중 선택할 수 있다.

98A는 방을 최대 5개까지 제공한다. 특히 안방 알파룸을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꾸밀 수 있다. 서재를 선택할 경우 부부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

이 외 98B~111타입은 평택 최초 이 6-bay 펜트하우스로 설계됐다. 별도의 유닛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모형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망권과 일조권을 최대한 살린 게 특징으로 테라스는 기본이고 옥외공간까지 조성된다.

정광록 분양소장은 "자이 더 익스프레스만의 자부심을 갖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평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커뮤니티와 평면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대우건설, 업계 최초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전원가압' 성공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대한국원자력연구원이 건설중인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JRTR)'의 '최초 전원가압(First Energization)'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에 5MW급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 제공

포스코건설, 송도·용인서 3178가구 분양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수지동천 더샵 파크사이드' 개관

포스코건설이 오는 3일 송도 국제신도시와 용인 수지에서 총 3178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동시에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날 각각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와 '수지동천 더샵 파크사이드'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하 2층~지상 47층, 18개 동, 전용면적 59~172㎡(펜트하우스 포함), 총 2848가구 규모다. 송도국제도시 내에 단일 단지로 최대 규모다.

아파트는 ▲59㎡ 1331가구, ▲72㎡ 524가구 ▲84㎡ 663가구 ▲101㎡ 88가구, ▲171㎡ 2가구 ▲172㎡ 2가구 총 2610가구다. 오피스텔은 ▲84㎡ 238실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59㎡의 경우 3억1000만원~3억4000만원, 84㎡의 경우 4억~4억4000만원이다. 주거형 오피스텔(84㎡)은 2억9000만원~ 3억3000만원 수준이다.

아파트 분양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접을 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며, 계약은 21~23일이다. 오피스텔은 15~16일 청약접수, 21일 당첨자 발표 후 22~23일 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0-9번지에 마련된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17번지에 들어서는 '수지동천 더샵 파크사이드'는 지하 5층~지상 17~21층, 5개동, 전용 84~101㎡, 총 330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가구수는 ▲84㎡A 226가구 ▲84㎡B 42가구 ▲101㎡A 42가구 ▲101㎡B 20가구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대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인근 분양가(1800원대)보다 저렴하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190번지에 마련된다. 입주예정일은 2018년 상반기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롯데건설, 하수처리 테스트 시설 준공

하루 150t 하수처리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은 지난 1일 경기도 용인 고기리 소재 곡현·손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장에서 차세대 하수처리기술 테스트 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설은 국내 최초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AGS, Aerobic Granular Sludge) 기술의 상용화 전 단계다. 하루 15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모래알 정도의 크기로 뭉쳐진 미생물을 하수처리에 적용한 공법이다. 기존 기술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양의 미생물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처리효율 향상은 물론, 미생물의 침전속도 역시 2배 이상 빨라져 소요 부지가 절감되고 에너지 사용량도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상용화가 되면 국내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새로운 개량 모델로서도 기대된다. 시설의 용지는 용인시 협조로 제공 받았다.



용인 차세대 하수처리기술 테르스 시설 준공식에 용인시의회, 용인시청, 롯데건설, 태영건설, 블루뱅크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은 태영건설, 블루뱅크와 함께 2년간의 개발 기간을 통해 이 기술을 상용화해 향후 2025년까지 30년 이상 된 50여 개 노후 하수처리장의 개량·보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주호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부지 축소, 운영비 저감, 최근 강화되고 있는 방류수 기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서울 아파트값, 34개월만에 1700만원 회복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4개월 만에 3.3㎡당 1700만원을 회복했다. 이는 전 고점인 2010년 3월 1850만원 대비 92% 수준이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3.3㎡당 1710만원을 기록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8.81%) ▲서초구(8.43%) ▲강동구(6.12%) ▲송파구(6.03%) 등 강남4구가 매매값 상승을 이끌었다. 이 기간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의 최대 수혜지역인 ▲양천구(5.28%) ▲노원구(4.69%) 아파트 가격도 올랐다.

강북지역의 경우 중소형 저가 아파트가 많은 ▲중구(3.48%) ▲성북구(3.30%) ▲도봉구(3.21%)도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김형석기자

대우인터, 기나긴 침체 터널 '끝' 보인다

| 마켓인사이트 |

'미얀마 가스전 매각' 놓고 포스코와 갈등 마침표
증권가,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주가반등 전망

최근 모회사 포스코와 내홍을 일단락지은 대우인터내셔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미얀마 가스전' 자원개발 사업을 필두로 종합상사를 뛰어 넘어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 초 전병일 사장의 사퇴, 저유가 우려 등에 주가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전 거래일 대비 1250원(4.80%) 오른 2만7300원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16일에 장중 한때 2만410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점을 찍은 주가는 한동안 0~2%대 사이에서 급락을 거듭하며 지지부진했다.

대우인터내셔널 주가의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지난달 26일 포스코가 종속회사인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매각 추진설을 공식 부인하면서부터다.

이날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자원개발부문 분할·매각 추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분할·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미얀마 가스전 매각' 갈등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가 60.3%의 지분을 소유한 포스코그룹 계열의 종합상사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무역·생산·판매·유통·자원개발분야 등 사업을 영위한다. 그 중 지난 2013년 첫 생산을 시작한 미얀마 가스전이 '효자 사업'으로 꼽힌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미얀마 가스전 생산량을 하루 약 5억입방피트(ft³) 규모까지 끌어올렸다. 가스전 개발의 최종 목표 단계인 생산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해 3761억원의 영업이익과 17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올 1분기 달성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108억원, 853억원으로 연초 제시한 '분기 영업이익 1000억원 달성' 목표를 뛰어 넘었다. 이중 미얀마 가스전이 영업이익에 기여한 금액만 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원개발분야 성공과 함께 대우인터내셔널 주가도 지난 5월4일 종가기준 3만950원까지 치솟았다.

대우인터내셔널 주가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 아닌 미얀마 가스전의 매각설이다. 지난 5월 26일 포스코 가치경영실의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매각 검토 문건이 외부에 공개된 것. 이 과정에서 전병일 전 사장은 '미얀마 가스전 매각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리는 등 포스코와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전 사장의 자진사퇴, 조청명 포스코 부사장의 해임으로 내홍이 마무리된데 이어 포스코가 매각설을 부인하면서 한 달 만에 논란은 끝이 났다. 다만 이 기간 대우인터내셔널 주가는 5000원 이상 빠지며 연저점을 기록하는 등 타격을 입게 됐다.

◆"현 주가, 금융위기 때 수준"

증권가에선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주가 반등을 전망한다.

남광훈 교보증권 연구원은 "저유가에 따른 미얀마 가스전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주가는 금융위기 때 수준과 맞먹는데, 현 주가 기준 수익률 3.5% 배당 매력과 사우디 완성차 프로젝트에 따른 신규 수익원 확대가 기대된다"며 목표주가 4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교보증권은 '철강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축소', '유가 하락에 따른 가스 공급가 하락과 판매 지연'을 이익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남 연구원은 "대우인터내셔널 2분기 영업이익은 1083억원으로 무역 및 미얀마 가스전 이익 감소로 시장 예상치를 5.9% 하회한다"며 "저유가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올해 가스전 이익 온기가 반영돼 수익이 큰 폭(전년 대비 39.3%)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황창석 신영증권 연구원도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 올해 예상 PER은 9.5배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배당성향 30% 기준(회사공식 목표치), 배당수익률은 3.1%로 이 역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대신증권, 달러투자 ELS 2종 출시 대신증권은 S&P500지수, 암젠(Amgen)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신 달러 ELS 2종'을 오는 6일 하루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대신증권 제공

한화투자證,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월 회전율 100%·주문 10회 이하

한화투자증권이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의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기준은 지난해 4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할 때 그 일환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거래 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 주문이 아니더라도 제한기준을 초과한 임직원 주문은 아예 접수조차 안 되도록 전산적 제어를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가장 수위가 높은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 제도로 임직원 자기매매 회전율을 월 75.2%에서 14.9%로 낮추고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어든 성과를 냈다.

더불어 한화투자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사전승인 절차는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일일이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임직원이 매수한 주식을 2주 또는 1개월 안에는 되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김보배기자

메르스 잠잠·휴가계획 활발… 여행株 '들썩'

| 마켓인사이트 |

여름 성수기 여행수요 회복세
업체들 연결 기준 실적 개선
공포국면 해소땐 급반등 전망

메르스가 차츰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이자 '여행주'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예약객수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지난달 여행사들의 실적이 예상외로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메르스 여파에도 국내 여행사들의 성장세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6월 송출객수는 각각 25만5966명과 12만85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4%, 24.6% 증가했다.

하나투어의 6월 패키지 송출객은 15만3094명으로 10.2% 늘었고, 항공권 송출객은 21.2% 증가한 10만2872명으로 집계됐다.

모두투어는 6월 패키지와 항공권 송출객이 7만7715명과 5만852명으로 각각 12.7%, 48.8% 증가했다. 일본 송출객이 70.0% 늘어나 성장을 주도했고, 16.1% 성장한 유럽도 23개월째 고성장세를 지속했다.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전주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서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전체 패키지 송출객 성장세가 견조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수요 부진에도 전체 실적 하향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름 성수기에 진입해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업체별로 연결 기준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일별 순예약 증감은 6월 마지막주부터 성장세로 전환됐다"면서 "성수기인 7~8월 예약률은 현재 수준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메르스 진정세와 전년 세월호 기저효과로 당분간 높은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하나투어의 목표주가를 종전 13만원에서 16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선애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3년 사스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도 전염이 진정된 이후 출국 수요가 바로 회복된 바 있다"며 "공포 국면이 지나가면 여행주도 단시일에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예탁원, 중국 A주 예탁결제서비스 개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1일부터 중국 A주 시장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탁원은 국내 증권사가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로서 중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중국 A주 90여개 종목을 이전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투자자가 중국 A주에 투자하려면 홍콩·상하이 증시 교차거래 제도인 '후강퉁'을 이용하거나 중국 정부로부터 QFII나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예탁원은 이번 QFII 자산이전을 시작으로 국내 증권회사가 QFII·RQFII 제도를 이용해 중국 A주 시장에 투자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 후강퉁 거래 주식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개설될 선강퉁(홍콩과 선전 증시간 교차거래)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지기자

라인택시, 日서 승승장구… 국내 출시는?

라인, 日 22개 도·현 서비스… 도쿄서 3340대 제휴
네이버 "대만·태국·印尼 우선… 한국은 아직"

다음카카오가 국내 모바일 플랫폼의 주도권을 쥐고 이를 연계한 '카카오택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유사한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서비스를 국내에서 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출시 된지 3달 남짓인 카카오택시 서비스는 지금까지 누적 호출수 300만건, 일 최대 호출수 12만건을 돌파하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월 말 카카오택시의 등장으로 콜택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라인은 앞서 1월부터 일본에서 택시 앱 '라인택시'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현재는 일본 47개 중 22개의 도·현에서 서비스 중 이다. 앞으로 지역 수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도쿄 지역의 라인 택시 서비스는 일본 교통 주식 회사가 보유한 3340대와 제휴를 해 진행했다. 일본 전역 서비스 시에는 일본 교통이 제휴하는 택시 사업자 129그룹이 보유하는 약 2만3000대가 순차적으로 서비스된다.

라인 택시는 국내 카카오택시와 유사점이 있다. 모바일 플랫폼에 힘입어 서비스를 시행 중 이라는 점이다.

라인 택시는 외부 앱을 추가로 받지 않고도 기존 라인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를 수 있고 결제는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 페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라인의 택시 배차 서비스 '라인 택시'.

◆국내에서 카카오택시 VS 라인택시 붙을 수 있을까?

일본에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라인택시이지만 국내 출시에는 미온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택시가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역을 넓힌다면 가입자 1위를 기록하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우선 순위 일 것"이라면서 "아직 국내에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출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라인은 글로벌 모바일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라인택시가 정식 출시하게 되면 라인이 서비스하는 모든 나라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대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글로벌 서비스 이기 때문에 국내의 사업성있는 서비스를 해외로 서비스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가 글로벌시장에 동시 출시될 수 도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네이버 라인은 월 사용량 데이터가 높지 않지만 국내 가입자 수를 1700만명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톡 가입자에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택시 앱을 출시한다면 네이버가 가진 시장의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더 잘나가는 라인이 국내 서비스 제공은 꺼려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실제 일본 시장에서 호평을 얻고 있기 때문에 출시를 분명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국내 콜택시 시장은 다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라이벌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SKT "광주 U대회, 무결점 통신서비스 제공"

첨단 ICT인프라 구축
신규 선로 99㎞ 매설

SK텔레콤은 3일 개막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통신부문 공식 후원사로서 초고속 유·무선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통합한 ICT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장 및 응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기지국과 중계기 100여식을 구축했으며,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 이동기지국 4대를 미리 현장에 배치했다.

초고속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가 와이파이 AP 100대 등 신규 AP 425대를 추가 구축했다. 네트워크 속도 개선을 위해 경기장을 중심으로 총 99㎞에 달하는 신규 선로를 매설했다.


SK텔레콤 구성원들이 광주U대회 주경기장인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통신장비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선수, 코치진, 운영요원 등 관계자에게 스마트폰, 무전기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통신단말기를 제공한다. 단말기 대여, 방송 중계망 전용회선 대여 등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콤 센터를 6월 26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SK텔레콤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북문 전시 공간에 구축한 첨단 ICT 체험관 '티움 모바일'에서 대회 기간 동안 '찾아가는 지점 서비스'를 운영한다.

SK텔레콤 이용자는 이곳에서 ▲단말 단기 임대 ▲휴대폰 급속 충전 ▲최적 요금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송 SK텔레콤 기업솔루션부문장은 "지난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이번 광주U대회에서도 무결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다양한 ICT서비스들을 새롭게 선보이는 'IT버시아드(IT+유니버시아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hm0108@

SK플래닛 'UHD 영상 압축' 세계서 인정

국제표준특허 등록
10년간 로열티 기대

2일 SK플래닛(사장 서진우)이 보유한 차세대 초고해상도(UHD) 동영상용 압축기술인 'HEVC' 특허가 세계적인 라이센스 회사 MPEG LA의 HEVC 국제표준특허 부문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MPEG LA는 지난 1997년 설립된 통신·멀티미디어·플랫폼 기술의 특허 라이센싱 대행 전문회사다. HEVC 국제표준특허 부문에는 2015년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등 31개사가 라이센서로 등록돼 있다. 전세계 49개국에서 603건의 특허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SK플래닛이 등록한 'HEVC'는 UHD 영상에 대한 압축률을 개선해 메모리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동영상 압축기술이다. 향후 전개될 UHD 대중화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동영상 사용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물론 향후 UHD영상을 지원하는 방송사, IPTV업체들의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HEVC는 현재 판매 중인 아이폰6와 갤럭시 S6 등 약 1억 2000만 대 이상의 휴대폰에 탑재돼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될 휴대폰과 영상기기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SK플래닛은 이번 HEVC특허 등록을 통해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LG '톤' 세계 시장서 1000만대 돌파

<블루투스 헤드셋>

美 점유율 40% 독보적 1위

LG전자의 블루투스 헤드셋 '톤' 시리즈가 글로벌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다.

LG전자는 지난 2010년 첫 출시된 톤시리즈가 2013년 1월 100만대, 2014년 7월 500만대가 팔린데 이어 11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대를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목에 두르는 넥밴드 형태의 LG 톤 시리즈는 현재 50여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뛰어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글로벌 시장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LG전자는 음향기기 전문업체 JBL, 하만카돈 등과 기술제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음질을 확보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톤시리즈는 미국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 점유율 40%를


LG전자 블루투스 헤드셋 '톤' 시리즈가 글로벌 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다.

넘어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전체 헤드폰 시장 4월 시장 점유율도 13.3%로 2위에 올랐다. /양성운기자 ysw@

200만원대 'SUHD TV' 나온다

삼성전자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TV SUHD TV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판매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SUHD TV 신제품인 JS7200을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뒤 이달 중 전세계에 순차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 모델이 SUHD TV 신제품인 JS7200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JS7200 출시를 계기로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SUHD TV 보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JS7200(7시리즈, 50/55/60형)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SUHD TV 라인업(8,9시리즈, 55/65/78/82/88형)이 다양해지고 모델수도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었다. 가격은 기존 SUHD TV 대비 최대 30% 이상 낮췄고(55형 기준), 200 만원 대 제품도 출시됐다.

SUHD TV JS7200의 출고가는 50형은 259만원, 55형은 359만원, 60형은 419만원이다. /조한진기자 hjc@

날렵한 외관·접목… 아이폰 유저 '군침'

| 시승기 | 더 넥스트 스파크

완성차 첫 애플 카플레이 채택
내비게이션·팟캐스트 등 지원
1000만원대 합리적 가격 매력



핸들이 크다. 한국지엠이 1일 발표한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에 탑승했을 때 든 생각이다.

경차의 실내에서 직경 370파이의 스티어링휠은 역설적으로 작은 공간을 커 보이게 만들었다.

시승한 차량은 전방충돌경고 시스템과 차선이탈경고시스템, 사각지대경고시스템 등 첨단사양이 추가된 최고급모델(LTZ, C-TECH)이다.

바퀴도 시원해졌다. 최대 16인치까지 선택 가능한 알로이 휠은 타이어와 휠하우스의 간극을 줄여 디자인됐다.

전체적인 외관 스타일 역시 한국지엠이 신경을 쓴 부분이다.

퉁퉁한 느낌의 기존 스파크 대비 확장된 휠베이스(2385㎜) 와 낮아진 전고(1475㎜)를 통해 보다 날씬한 이미지의 공기 역학적인 유선형 디자인을 구현했다.

스티치로 마감한 검정·회색의 투톤 가죽시트와 스마트 시동버튼이 눈에 띈다.

발광다이오드(LED) 아날로그 클러스터는 다기능 디지털 그래픽 화면을 통해 차량 정보와 주행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시인성이 좋은 화이트 LED 계기판을 적용해 가독성을 높였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위치한 마이링크(MyLink) 시스템은 후방카메라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및 공조 시스템 제어를 지원한다.

신형 스파크에는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애플 카플레이를 채택했다.

내비게이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팟캐스트와 음악 감상 등을 지원해 아이폰 이용자라면 차량 선택에 있어 고려할 부분이다.

트렁크 공간은 매우 작아 책가방과 장바구니 정도를 넣을 수 있다.

주행 성능은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뭐'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형 1.0리터 SGE 에코텍 엔진을 장착해 최대출력 75마력, 최대토크 9.7㎏·m의 힘을 낸다.

느린 응답성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엑셀레이터 페달을 끝까지 밟아줘야 가속이 붙는다. 3분의 1 정도까지는 밟아도 반응이 없고 슬슬 나갔다. 시속 80~100㎞를 넘어 120~140㎞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 사이 rpm(분당 회전수)은 4000~6000까지 치솟았다. 이에 맞춰 엔진 소리도 점점 커졌다.

브레이크 페달은 느슨해 어느 정도 밟아도 차가 밀렸다. 이 역시 급제동을 하려면 끝까지 꾹 밟아줘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하는 대로 가속과 제동이 되지 않아 운전의 피로도가 컸다.

고속 주행을 제외한 시내 도심용 경차라는 느낌이 강하다. 이 차의 복합연비는 리터당 14.8㎞(도심 13.7㎞, 고속 16.5㎞)다. 가격은 149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삼성·LG, 단통법 돌파구 '중저가' 눈돌린다

프리미엄 모델 판매 부진
대리점 "중저가 문의 늘어"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프리미엄 모델의 판매 부진을 중저가 모델을 통해 보전하려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도 개선을 구두로 제안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예년 같지 않다는 분위기가 현실화됐고 이에 제조사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업 실적을 당초 예상치 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G4의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갤럭시S6 시리즈 모델의 출고가는 85만8000~105만6000원, G4의 출고가는 82만5000원이다.

단통법의 여파로 최근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중저가 스마트폰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다.

서울 광화문의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고객들의 구매가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며 "단통법 시행 후에는 저렴하거나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단말기의 판매량이 예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31만9000원)는 지난달 넷째주 국내 판매량 2, 3위에 랭크되며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한 이동사 대리점 직원은 "고객들이 프리미엄 모델과 중저가 모델의 성능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A와 갤럭시 알파에 대한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LG전자 역시 중저가 모델인 볼트(20만원대 중후반), 밴드플레이(34만9800원), 마그나(26만4000원), G스타일로(50만원대 초반)를 내놓았으면서 초반 바람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임은정기자 eunj7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김동균 SK하이닉스 부사장(맨오른쪽)이 일반부 대상 수상팀 SCAMPER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제공

"청년 아이디어, 사회 기여 적극 지원"

SK하이닉스
'행복한 과학기술' 시상

SK하이닉스(대표이사 박성욱)가 후원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행복한 과학기술 공모전' 시상식이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역삼동)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15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 중 하나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IT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총 386개팀 1213명이 참가해 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IT 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

공모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됐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솔루션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소형PC '라즈베리파이'와 이에 대한 전문 교육이 제공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아동보호용 특수 CCTV를 개발한 'SCAMPER'팀(일반부 대상)과 자전거 보도이탈을 예방하는 지능형 자전거를 개발한 '백투더하이스쿨'팀(대학부 대상) 등 총 25개 팀이 수상했다. 수상작들의 특허 취득과 실질적 창업지원을 돕기 위한 창업워크숍도 함께 진행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IT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SK에너지 'SK유조선' 블록장난감 완판

포인트사은품 5만개
2개월 만에 모두 소진

SK에너지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주유 마케팅 행사 '3000 포인트 특권' 사은품으로 준비한 옥스포드 블록 장난감 5만개가 완판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장난감은 200여개 이상의 블록으로 구성돼 조립하면 'SK 유조차' 모형이 된다.

SK에너지는 지난해에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SK 주유소' 블록 장난감을 '3000 포인트 특권' 행사의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이때도 이벤트 종료 전에 5만개 전량이 완판됐다고 SK에너지는 전했다.



어린이들이 SK에너지 '3000 포인트 특권' 행사로 제공된 옥스포드 블록 장난감으로 조립을 하고 있다. /SK에너지 제공

SK에너지는 고객들의 호응을 고려해 내달께 시작할 하반기 '3000 포인트 특권' 이벤트도 한정판 블록 장난감을 사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SK에너지 측은 "블록 장난감은 30~40대 키덜트족, 어린 자녀들과 함께 SK 주유소를 찾는 가족 단위 고객들의 지지도가 높은 사은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블록 장난감을 기획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현대차
2016년형 쏘나타 판매 개시

현대자동차는 2016년형 쏘나타를 2일부터 판매한다.

신형 쏘나타는 기존 2.0 가솔린 중심의 라인업에서 1.7 디젤, 1.6 터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모델이 추가됐다.

특히 판매가 가장 많은 2.0 CVVL의 경우, 연비·안전 사양을 향상시키면서 가격은 동결·인하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신형 쏘나타는 엔진에 따른 제품 특성에 맞춰 디자인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젊은 고객 취향에 맞춰 램프 등 일부 디자인을 변경했다.

쏘나타 PHEV의 판매가격은 ▲프리미엄 3995만원 ▲익스클루시브 4260만원이다. /정용기기자 yonggi@


★★★★★
영화 속 서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인생과 같다!
- The warp -
아들바보 억척엄마의 자아찾기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
RID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헬렌 헌트
〈더 기버:기억전달자〉 브렌튼 스웨이츠
7월 16일 대개봉!
ULTRAMEDIA
|감독/주연|헬렌 헌트 |수입/배급| tcast cinecube |15세 이상 관람가|
SIX SALES

국내 모바일결제 '페이시장' 경쟁 본격화

네이버·다음카카오·삼성·애플 등 주도권 쟁탈전 치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삼성페이'서비스를 당초보다 2개월 가량 미루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시장이 애플과 LG전자의 본격적인 합류로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 특히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앞서 진출하며 치열한 시장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는 카드 결제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되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기술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애플페이와 달리 MST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갤럭시S6 시리즈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국내 금융사와 만남을 갖고 서비스 준비에 돌입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하나금융그룹, 비자카드 등 국내 카드사를 만나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해 협의했다. 국내 NFC 결제 인프라 현황과 시스템을 점검했다. 실제 가맹점에서 결제 시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도 애플페이를 아이폰6 시리즈와 애플워치부터 적용했다. 애플은 한국에서 아이폰 사용자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NFC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선점의 우위를 확보한 셈이다.

여기에 그동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했던 LG전자도 연말 안드로이드페이 서비스에 맞춰 모바일 결제 시장에 합류할 전망이다. 안드로이드페이는 애플페이와 비슷한 결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6를 이용해 삼성페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25일 클릭 한번으로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아이디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충전,적립, 송금까지 가능하다. 현재 제휴 금융사는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14곳이다.

또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의 쇼핑 혜택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 채널 구축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가 가능한 고액결제 비밀번호 기능을 도입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결제 플랫폼인 '페이코(PAYCO)'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영역확장을 하고 있다. 페이코는 페이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다양한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풍성한 쿠폰 할인과 포인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간편구매·결제 서비스다.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신용카드에만 국한된 반면 페이코는 신용카드는 물론 바로이체, 무통장입금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 티머니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층을 확대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합류와 국내 IT기업들의 경쟁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장 경쟁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쌍용차 '유로6' 충족… 코란도 C LET2.2 출시

쌍용자동차는 코란도 C LET 2.2를 2일 출시했다.

쌍용차는 코란도 C LET 2.2의 파워트레인을 업그레이드 하고 다양한 신규 사양을 적용했다.

코란도 C LET 2.2에는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e-XDi220 엔진이 새롭게 적용됐다.

여기에 아이신사의 6단 자동변속기가 결합됐다.



e-XDi220 엔진의 최고출력은 178마력, 최대토크는 40.8kg·m다. 복합연비는 13.3km/ℓ다.

코란도 C LET 2.2의 판매가격은 트림에 따라 ▲KX 2185만원 ▲RX 2540만~2670만원 ▲ DX 2820만원 ▲Extreme 2597만원이다.

/정용기기자

네이버, '댓글' 실시간 검색어에 반영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면 실시간 성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추출해 검색 결과에 반영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온라인상 관심사에 대한 이용자 반응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댓글이라고 보고 실시간 검색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색 결과 이용자들의 댓글이 많이 생성되는 연예 및 스포츠 관련 뉴스 댓글을 먼저 반영했으며, 이달 중으로 TV캐스트 댓글도 추가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및 블로그, 카페 등으로 '실시간 검색'에 반영할 댓글의 추출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실시간 이슈를 더욱 빠르게 검색 결과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탐지하기 위한 'RED' 시스템과 이용자들의 특정 이벤트 관련 실시간 반응을 반영하기 위한 'REACT'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반기 중에는 두 시스템을 모두 모바일 검색에 적용해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이미지 등의 다양한 문서로부터 일반적인 트래픽 범주를 넘어서는 특이상황이 발생한 것을 실시간 이슈로 탐지, 이를 자동으로 추출해 검색 결과로 제공하고 이용자 반응도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최재걸 네이버 리얼타임검색 TF장은 "지금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에 관심을 보이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제공하면서 네이버 검색에 실시간성을 입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다음카카오, 공익 모금 누적액 100억 돌파

'희망해' 7년6개월 만에

다음카카오는 공익모금 서비스인 '희망해' 캠페인의 누적 모금액이 서비스 시작 7년 6개월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희망해는 2007년 12월 다음 아고라 이용자들의 청원과 함께 '희망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1년 4월 더 많은 이용자의 동참을 끌어내고자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비스 명칭도 희망해로 바꿨다.

2007년 '태안 자원봉사 기금을 모읍시다'를 비롯해 2010년 '아이티 7도 강진 피해돕기 모금', 2014년 '해고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세월호 침몰 참사, 마음을 모아주세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마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줄을 이었다.

연도별 모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첫해인 2008년 약 5억원의 모금을 달성한 데 이어 2010년 7억 8000만원, 2011년 11억원, 2012년 13억원, 2013년 17억원, 2014년 24억원 등 연평균 약 30%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까지 참여한 이용자 수는 총 764만명에 달하며 1회 평균 약 8550원을 기부했다.

총 12억원을 넘게 기부한 닉네임 '풍요'가 누적 최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고 닉네임 '한지혜', 'alflso'는 한 번에 500만원을 기부해 단일 최고액 기부자로 꼽혔다. /정문경기자

포스코ICT, 동해남부선 역무자동화시스템 수주

안락~일광 8개 역사에 구축

포스코ICT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역무자동화시스템(AFC)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과 울산을 잇는 65.7㎞ 구간을 복선화하는 동해남부선 중 부산 지역의 안락~일광 구간 8개 역사에 통행요금 부과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수주액은 약 40억원으로 전해졌다.

포스코ICT는 교통요금 부과를 비롯해 카드판매·충전, 자동개·집표, 환승통로설비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공급한다.

포스코ICT는 정보기술(IT)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접목해 스크린도어, 철도통신, 신호 등 철도 기술 전반에 적용 가능한 토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ICT의 기술이 적용된 지하철 9호선의 개찰구. /연합뉴스

이에 포스코ICT는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의 AFC와 통신, 선로, 전기설비 등을 구축했다.

이어 최근에는 2020년까지 이 AFC를 운영·유지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호찌민 도시철도 1호선 구축 사업, 브라질 상파울루 지하철 2~4호선 스크린도어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면세점 입찰' 이부진·정몽규 막판 승부수

'K-디스커버리' 발족식
관광 2000만시대 앞장

철도관광상품 개발 등
용산지역 관광 활성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입찰 승기를 잡기 위해 막판 승부수를 띄웠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은 2일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민관협력단체 '케이(K)-디스커버리(Discovery)' 협력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HDC신라면세점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 대해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진흥과 지역·지방 관광의 고른 발전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과 정몽규 회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것은 다음달 10일 발표 예정인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승기를 잡겠다는의도로 풀이된다.



/HDC신라면세점 제공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윤석, 신성범, 윤관석 국회의원, 설문식 충청북도 부지사, 성장현 용산구청장, 박병수 용산전자상가 연합회 이사장, 차경수 코레일관광 사업단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K-디스커버리는 주요 사업은 HDC신라면세점, 지방자치단체, 코레일이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HDC신라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코레일은 철도망을 통해 관광객을 실어나르게 된다. 지자체는 이들 관광객에게 지역 관광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HDC신라면세점은 침체된 용산 지역 경제를 부활시켜 국내 관광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용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용산 전자상가를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처럼 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산 상권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용산 지역 명소화를 위한 관광 콘텐츠를 공동 개발한다. 또 사후면세점 도입과 외국인 대상 홍보 등 전자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설과 시스템,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용산에서 시작하는 광역철도망을 통해 연결된 지자체, 기업과 협력해 지방 유명 상품을 소개해 판매하고, 수도권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는 세계최대 도심형 면세점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콘텐츠를 관광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 사장은 별도의 인사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호텔신라 측은 "면세점을 통해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이 사장의 뜻을 전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수면위로 떠오른 이부진式 경영 행보

메르스 적극 대응 "강단 있다" vs 독과점 논란 침묵 "글쎄"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입찰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부진(사진·45)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의 경영리더십이 자연스레 수면 위로 노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강단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면세점 독과점 논란에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메르스사태와 시내 면세점 입찰을 계기로 적극적인 경영리더십을 보였다.

이 사장은 141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 전인 지난 5~8일 제주를 여행하며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신라호텔에 묵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18일 오전 제주에 내려가 일주일 넘게 머물렀다.

그는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메르스 우려가 사라질때까지 141번 환자가 묵었던 신라호텔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당국의 영업을 자제해달라는 통보에서 한 발 더 나가 하루 3억원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후 6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격리하는 등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메르스 2주 잠복기가 끝난 시점인 25일에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30일까지 호텔문을 닫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말엔 HDC신라면세점 최고 경영진과 중국 주요 여행사를 방문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에 섰다. 이어 2일 관광산업 발전 비전 선포식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면세점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HDC신라면세점 합작법인으로 T신규 면세점 입찰에 뛰어든 뒤 증권가에서 유력한 후보(낙찰 가능성 80%)로 거론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상치 못한 독과점 조사란 복병을 만나게 됐다.

공정위는 현재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과점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호텔신라의 시장 점유율은 30.5%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4조는 상위 1개 업체가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를 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부진 사장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 비전 선포식 간담회에서 시종일관 침묵 유지했다. 별도의 인사를 하지 않았고 공식 행사와 식사를 마친 뒤에는 면세점 독과점 이슈와 사업 전망 등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연거푸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속초 명물 '새우강정' 맛보세요" 현대백화점(사장 김영태)은 3일부터 9일까지 압구정본점에서 속초 대포항 새우 튀김 골목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춘옥 씨앗 새우강정'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백화점 제공

부산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 추진

롯데그룹, RFC 공모 참여
수상레저 시설 등 설치 계획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부산 북항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콘셉트 제안(RFC) 공모에 참여 건설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공모 사업에는 34곳이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제안서에 롯데자산개발·롯데호텔·롯데건설로 컨소시엄을 짜고 말레이시아의 카지노기업 겐팅그룹과 협력해 부산 북항 재개발지구에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개략적인 방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번 복합리조트 개발에 외국인을 위한 카지노 설치를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부산 북항을 레저시설이 들어서기에 알맞은 곳으로 보고 공모에 당첨되면 호텔, 면세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가 단독으로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 사업에 공모한 것"이라며 "공모 사업에 34곳이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2곳이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1cindiun@

故노무현 대통령 조롱 광고 논란

네네치킨, SNS에 사진 게재



혜인식품(대표 현철호)이 운영하는 치킨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네네치킨 본사 페이스북 페이지와 경기서부지사 페이지 등에는 "닭다리로 싸우지 마세요. 닭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네네치킨"이라는 글과 함께 문제가 되는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커다란 치킨을 안고 있는 모습이 합성돼 있다.

이 사진은 삽시간에 고 노 대통령 조롱 광고로 SNS 통해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페이지 운영자는 "노무현 대통령도 맛있게 즐기시는 치킨이라는 의미에서 올린 건데 오해하셨다니 죄송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며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서경배 회장, 주식부자 1위

총 보유주식 12조원 넘어
삼성 이건희 회장도 제쳐
실적증가·액면분할 등 호재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53·사진)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부호 1위로 올라섰다.

재벌닷컴이 2일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보유 상장사 주식 자산을 조사한 결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보유 주식 자산은 12조804억원으로 연초의 6조741억원보다 98.9%나 증가했다.

6개월 새 보유주식 평가액이 6조원이 넘게 불어난 셈이다. 2위로 밀려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자산은 11조8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주식자산이 연초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주식부호는 지난달 종기 기준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과 임성기 한미약품[128940]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4명으로 집계됐다.

서 회장이 9.08%와 51.3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아모레퍼시픽그룹) 주가는 실적 증가와 액면분할 등을 호재로 삼아 올해 상반기에만 80% 넘게 뛰었다.

지난달에는 주식자산 증가율 세계 2위로 꼽히기도 했다. 재벌닷컴과 미국 포브스 등에 따르면 서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은 연초 55억 달러(한화 6조741억원)에서 지난 5월 18일 기준 106억3000만 달러(11조5378억원)로 93.27%나 늘었다. 이에 따라 세계부호 순위도 연초 185위에서 122위로 무려 63계단 뛰었다.

한편 지난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매출 4조 7119억원, 영업이익 6591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21%, 40.3% 증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5대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인 설화수·라네즈·마몽드·에뛰드·이니스프리를 내세워 해외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설화수는 싱가포르 랜드마크 지역인 '캐피톨 싱가포르'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는 설화수의 100번째 글로벌 매장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가나초코바' 세균 기준치 6배 초과 검출

롯데제과, 전량 회수 조치



롯데제과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나초코바는 최근 대구시 중구의 의뢰로 진행된 검사에서 세균수가 기준치(1만마리/g)의 무려 6배인 6만마리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생산 공장이 있는 경남 양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물량은 지난 4월 16일 제조된 2800상자(유통기한 2016년 4월15일)다.

롯데제과 측은 해당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습도나 온도 등의 문제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ora6693@

토니모리, 청약 경쟁률 771.08대 1

청약증거금 7조5000억
오는 10일 코스피 상장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대표 배해동)는 1~2일 진행된 일반공모 청약 결과 최종 경쟁률이 771.08대 1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약 7조5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는 앞서 진행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에서도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3만2000원에 결정된 바 있다. 업계 우위의 품질력과 빠른 기획력, 토니모리만의 차별성 구축을 통한 다양한 해외 진출 성공 레퍼런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해동 토니모리 대표는 "이번 성공적인 코스피 시장 입성은 토니모리가 글로벌 코스메틱 트렌드 리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외 기반의 성공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아름다움을 담는 브랜드로써 글로벌 코스메틱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 설립된 토니모리는 현재 총 20개 국가에 약 1만8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5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49억원과 116억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토니모리는 이달 1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SPC, 장애인 작업장에 제빵기술 전수

'우리밀 제과제빵 교육' 실시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1일 오후 대방동에 위치한 SPC미래창조원에서 서울시 관내 10개 장애인제과제빵작업장 제빵사 20명을 대상으로 '우리밀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제과제빵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전국에 약 50여 개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600여명의 장애인들이 제과제빵사의 꿈을 키우며 빵을 굽고 있다.

SPC그룹 삼립식품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들은 우리밀을 원료로 한 빵과 케이크, 쿠키 등 총10개 제품의 제조에 대한 시연과 실습을 통해 기술을 전수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제빵사들은 장애인제과제빵작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제빵기술을 가르치며 작업장을 운영해 나가는 제빵사들이다. /bora6693@

이열치열, 식품업계 매운맛 '인기'

불경기에 스트레스 해소
고추장·냉면 매운맛 찾아



여름 더위 속에 매운맛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메르스로 우울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겹치며 매운맛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상이 지난 4월 리뉴얼해 선보이고 있는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고추장 중 가장 매운맛을 내는 '불타는 매운 현미 태양초 고추장'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불타는 매운 고추장의 경우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지않았음에도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더해져 점차 찾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반고추장과 덜 매운 고추장이 선호도가 높아 주력 제품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기대 이상의 호응에 힘입어 유통채널 확장 등을 통해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맛으로 대표됐던 고기양념도 매운맛 제품이 인기다.

대상 온라인몰 정원e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청정원의 '양푼 매운 갈비양념 화끈한 맛' 제품의 6월 판매량도 지난달 대비 약 126% 늘었다.

청양고추보다 무려 20배나 더 강한 하바네로 고추 넣어 만든 '동원 양념에 빠진 불골뱅이'도 빼놓을 수 없다. 불골뱅이를 활용해 만드는 '불골빔면(불골뱅이+비빔면)'은 '골빔면(골뱅이+비빔면)'의 매운 버전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달리고 있다. 이 제품은 별도의 양념 조리 없이 통조림 속 양념 만을 활용해 무침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채소·면사리 등에 통조림 속 골뱅이와 양념을 통째로 부어 무치기만 하면 골뱅이무침이 된다.

대상FNF 종가집은 냉면의 계절 여름을 맞아 매운 비빔냉면을 출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제품은 100% 국내산 쌀과 고춧가루로 만든 숙성된 고추장에 국산 마늘과 양파를 갈아 넣어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운 양념장이 특징이다. /bora6693@

'보그 프리마' 200원 가격 인하 판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사장 가이멜드럼)는 수퍼슬림 브랜드 '보그' 중 '보그 프리마' 가격을 6일부터 4300원에서 4100원으로 내린다고 2일 밝혔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수퍼슬림 제품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담배시장의 변화에 맞춰 더 많은 성인 흡연자들에게 '보그 프리마'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 출시된 '보그 프리마'는 숯 필터를 장착,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담배 제품을 찾는 중장년층 흡연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bora6693@

더페이스샵, 바캉스 필수품 '반값'

11일까지 '쿨 썸머 페스티벌'
메이크업 제품도 3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4일부터 11일까지 '쿨 썸머 페스티벌'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더페이스샵 전국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마스크시트와 바디 전품목, 자외선 차단제 등 바캉스 필수품 데오드란트 등 소취제품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대표 품목인 '갈아 만든 마스크 시트'는 신선한 자연 원료를 그대로 담은 탁월한 보습과 영양 효과, 붙였다 떼어내는 편리한 사용법으로 연간 2800만 장이 판매되는 인기 제품이다.

'아이스 에어퍼프 선' '내추럴 선 에코 피지 잡는 수분 선' '내추럴 선 에코 파워 롱래스팅 선' 등 더페이스샵 베스트셀링 자외선 차단제 3종도 할인한다.

이 외에 '블란클라우딩 하얀 수분크림', '치아씨드 피지 잡는 수분크림' 등 기초 제품과 '잉크 립퀴드', '피지 잡는 수분쿠션' 등 메이크업 제품도 30% 할인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청도용암온천, 베니키아 호텔체인 가입

관광公 "국내외 적극 홍보"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 공사 5층 소회의실에서 청도용암온천과 베니키아 호텔체인 가맹계약을 체결(사진)했다.

'베니키아호텔 청도용암온천'은 청도와인터널과 프로방스 포토랜드, 소싸움경기장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가족여행 호텔로 숙박하기 좋다. 또한 지하 1008m에서 끌어올린 43도의 천연광천온천수를 제공하고 있어 온천, 사우나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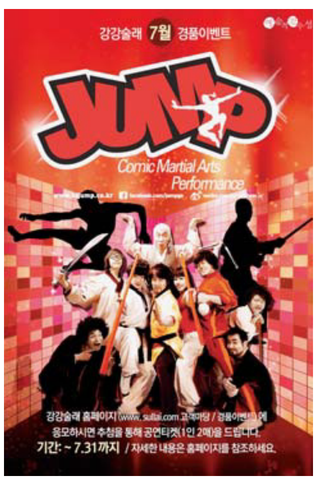
이번 체결을 통해 전국에 베니키아 체인 호텔은 총 63개(총 객실 5566실)가 됐다.

관광공사 장재선 베니키아사업팀장은 "베니키아호텔청도용암온천은 지역 내 테마관광지와 연계가 가능하고 온천시설이 있어 가족여행자들에게 최적의 호텔이다. 베니키아 체인호텔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호텔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강강술래 "메르스 근심 털고 점프하세요"

이달말까지 홈페이지 추첨
뮤지컬 '점프' 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무더위와 근심 걱정을 날려줄 화려한 무술의 코믹뮤지컬 공연을 선물하는 문화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넌버벌 뮤지컬 '점프' 공연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점프는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엉뚱하고 귀여운 도둑들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대사 없이 생생한 라이브 액션과 절묘한 코믹 연기로 관객들에게 요절복통 웃음을 선사한다.

화려한 마샬아츠, 아크로바틱에 극적인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 국내와 전세계 40여 개국 120여 도시 1만여 회 공연으로 전세계 500만 명 이상 관객을 열광시켰다.

또 뮤지컬 본고장 웨스트엔드 4년 연속 초청공연과 뉴욕 브로드웨이 상설공연을 비롯해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강술래는 경기 고양시에 가족단위 중심의 힐링 외식문화공간을 목표로 총 450억원을 투자, 국내 최대 규모의 신개념 외식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중국 텐진시에 첫 매장을 내며 해외진출에도 나섰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상명대 구기헌 총장과 키르기스스탄 해외봉사활동 중인 상명대 학생들.

상명대, 중앙아시아와 학술교류 추진

구기헌 총장, 직접 방문 나서
해외봉사단 격려·학교 홍보

상명대학교 구기헌 총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다. 상명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상명대 해외봉사단 학생들을 격려하고 중앙아시아의 대학과 고등학교 관계자 그리고 주재 한국대사와의 간담회를 위해서다.

우선 총장이 직접 상명대의입학 홍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켁 4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여기서 구 총장은 학교장과 신입생 모집, 교직원 교류와 졸업생의 상명대 진학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어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의 정병후 대사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육교류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 대사는 상명대 해외봉사단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구 총장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한국교육원을 방문해 해외봉사활동 중인 상명대 학생들을 격려한다. 상명대 해외봉사단 학생들은 2주 동안 현지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사물놀이, K-pop, 태권도 등을 보급하는 교육활동을 펼쳐 봉사 시작부터 현지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상명대는 2009년 키르기스스탄 KSUCTA 대학교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9개 대학과 교환학생, 교환교수, 공동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치선기자

한림대 '방송통신정책연구센타' 지원사업 선정

언론정보학부 노기영 교수팀
4년 간 13억6000만원 지원



한림대학교(총장 노건일) 언론정보학부 노기영(사진) 교수 연구팀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모한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CPRC)'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림대는 노기영 교수 연구팀이 동계올림픽 ICT정책연구를 위해 최장 4년간 총 13억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대학 가운데 최초로 선정된 것. 기존 서울대, KAIST, 단국대에 이어 신규로 한림대와 연세대가 선정됐다.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정보통신, 방송 융합추세를 선도할 정책 전문가 양성과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림대는 사업선정으로 ICT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올림픽 스마트미디어와 실감형영상콘텐츠(UHD)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도입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상파 UHD방송과 스마트미디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콘텐츠 수급방안과 생태계조성 정책을 연구하게 된다.

한림대 ICT정책연구센터는 지역대학에서 ICT정책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ICT정책 전문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올림픽 ICT정책 연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ICT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노교수는 저서 '방송산업과 경쟁'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림대 BK21플러스 인터랙션디자인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복현명기자 hmbok@

성신여대, 교내 용역 '생활임금제' 시행

성북구와 업무협약 체결
민간 확산 위해 캠페인도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심화진)는 지난 1일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와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북구와 성신여대는 ▲매년 성북구가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이 각 대학교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임금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성북구측은 "공공성이 가미되어 있는 관내 소재 대학과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민간 부문으로 생활임금을 확산시키기 위한 단계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star bag

‘찌라시’ 유포자 고소



배우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 컴퍼니가 최근 불거진 동영상 ‘찌라시’에 대해 다시 한번 강경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2일 오전 “지난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무수단’서 북한군 변신



배우 **도지한**이 영화 ‘무수단’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무수단’은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고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남북한 최정예 군사들이 벌이는 사투를 담은 작품이다. 도지한은 작전 수행을 위해 남측 비무장지대에 침투한 북한군 최철 역을 맡았다.

새 앨범 9일 발매



가수 **이승열**의 새 앨범 ‘SYX’의 발매일이 오는 9일로 정해졌다고 소속사 플럭서스 뮤직이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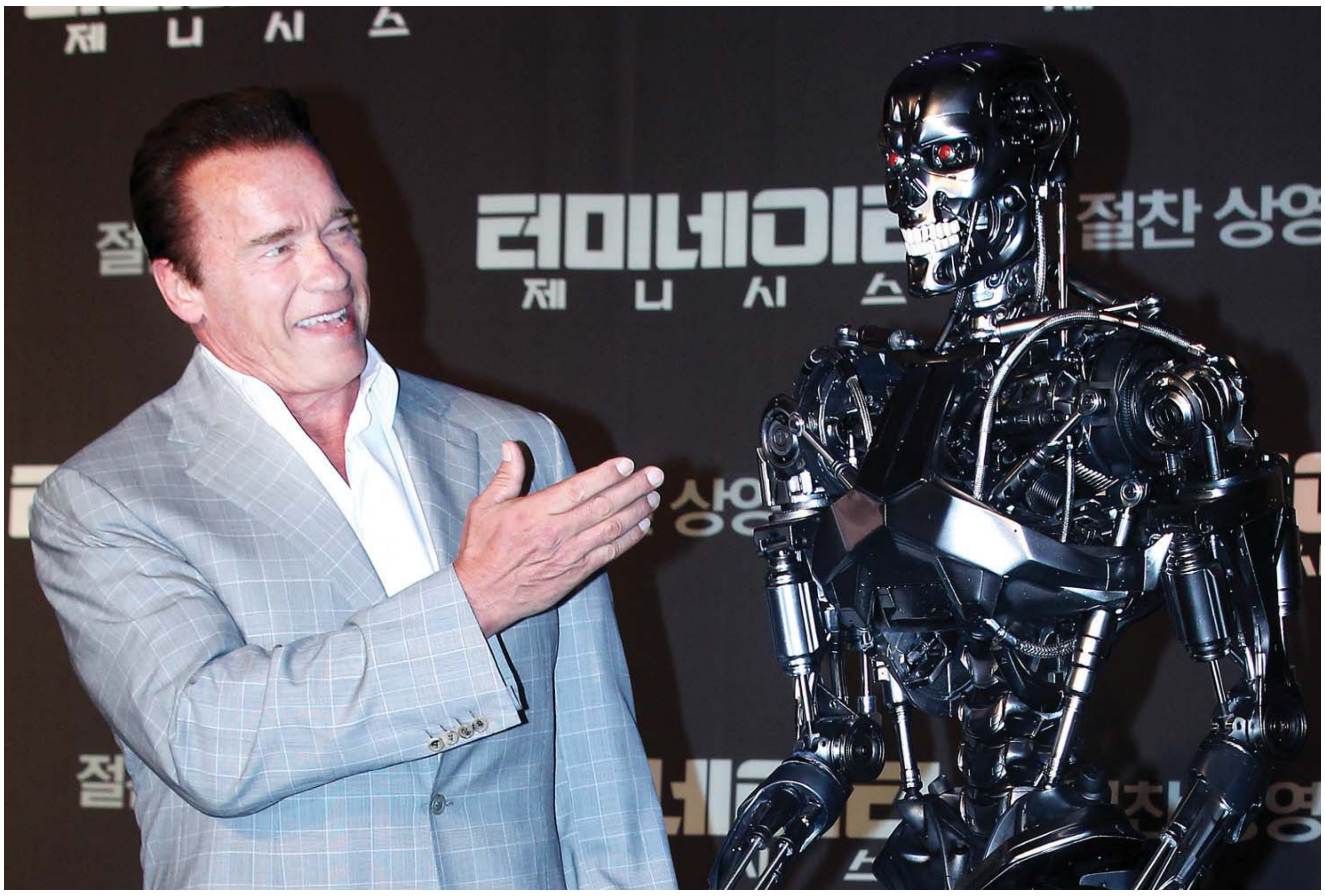
당초 이승열의 새 앨범은 오는 8일 발표 예정이었다. 그러나 ‘뮤지션쉽’이 강한 이승열의 음악을 보다 많은 팬들에게 들려줄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루 늦은 9일 발표로 확정하게 됐다.

김희애와 자매로 호흡



배우 **신소율**이 김희애와 자매로 호흡을 맞춘다.

2일 소속사 가족액터스는 신소율이 8월 방송예정인 SBS 새 월화드라마 ‘미세스캅’에 캐스팅 됐다고 밝혔다. ‘미세스 캅’은 강력계 형사들의 범인 추적기를 담은 경찰 드라마다. 신소율은 김희애의 동생인 고시생 최남진을 연기한다.



‘터미네이터’ 있었기에 내가 있는 것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아놀드 슈왈제네거**

배우 인생에서 한 편의 작품을 통해 강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것도 없다. 할리우드 스타 아놀드 슈왈제네거에게는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바로 그런 작품이다.

보디빌더 출신으로 배우가 된 아놀드 슈왈제네거에게 1984년 ‘터미네이터’는 연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무자비한 파괴력을 지닌 기계 로봇으로 스크린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1991년 ‘터미네이터2’에서는 전작과 달리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기계 로봇으로 관객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있었기에 지금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연기 커리어의 전환점이 된 시리즈 ‘시간 여행 다룬 SF적인 설정’ 매력

6년만에 새롭게 선봬는 리부트 작품 창의적 플롯·서스펜스에 끌려 출연

또 한국 찾고 싶다… “아일 비 백”

2일 오전 서울 논현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내한 기자회견을 통해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만났다. 그는 “‘터미네이터’는 내 개인적인 커리어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작품”이라며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1편 출연 당시 악역이었음에도 강렬한 캐릭터에 끌려 출연을 결심한 그는 이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매력으로 ‘시간여행을 다룬 SF적인 설정’과 ‘강한 파괴력을 지닌 캐릭터’를 꼽았다. 또한 기계이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이 녹아 있는 터미네이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배우로서도 즐거웠다고 밝혔다.

2일 개봉한 영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는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터미네이터’ 시리즈 신작이다. 지금까지의 시리즈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리부트’ 작품이기도 하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처음 이 영화 제안을 받았을 때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 뒤 시나리오를 받았다. 창의적인 플롯과 서스펜스, 그리고 예상 못한 반전과 액션이 있어 기뻤다”며 출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전 작품과 달리 사라 코너(에밀리아 클라크)의 보호자 역할을 한 것, 그리고 터미네이터와 터미네이터의 대결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번 영화에 끌린 부분이었다.

영화 속 명대사는 “늙었지만 쓸모 없지는 않다”는 터미네이터의 대사다. 1편 출연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는 60대가 됐음을 떠올리면 세월의 애잔함이 묻어 있다. 그러나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배우와 와인, 시가와 좋은 책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고 훌륭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월을 무색하게 만드는 건강함이 깃든 말이었다.

오스트리아 출신 이민 1세대인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배우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정치 활동을 했다. 이후 배우로 다시 돌아온 그는 “가끔은 정치 일을 하던 것이 그립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연기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며 “미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며 웃었다. ‘라스트 스탠드’ 이후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그는 “또 다시 한국을 찾고 싶다”며 “아일 비 백”이라는 재치 있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정치와 배우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입니다. 하지만 둘 다 관객 혹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배우로서는 사람들이 즐길만한 영화를 만드는 것, 정치인으로서는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정책을 만드는 것이죠. 훌륭한 직업을 모두 가질 수 있어서 기쁘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6/11 2PM LAST TICKET OPEN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협력연출|유병은 |협력안무|홍유선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조윤형 |기술감독|이유원 |제작감독|김완식
|제작|(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kibo 기술보증기금 |협찬|KDB산업은행 |홍보|SHOWHOLIC |예매|인터파크 (1544-1555) 티켓 (1566-1369) |문의|(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웃음·감동… 대학로 물들이는 가족이야기

연극 '친정엄마' '나와 할아버지' '잘자요, 엄마' 잇따라 무대에


연극 '잘자요, 엄마'의 이지하, 김용림, 나문희, 염혜란(왼쪽부터).

요즘 대학로가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일상을 그린 연극들로 채워지며 가족 이야기로 물들고 있다.

지난 5월 초 개막한 연극 '나와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친정엄마', 오는 3일 개막하는 '잘자요 엄마'까지 가족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가득하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맹활약하고 있는 나문희·김용림·박혜숙·조양자 등 중년배우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것도 즐거움이다.

◆ 모녀사이 힐링극 '친정엄마'

너무나 익숙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엄마와 딸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았다. 딸은 대학 진학을 하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까지 한다. 엄마는 항상 그런 딸을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김수로 프로젝트 11탄으로 제작된 올해 무대는 베테랑 배우 박혜숙·조양자가 엄마 역으로, 배우 이경화·차수연이 딸 미영으로 출연했다. 8월 30일까지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공연된다. 문의: 02) 548-0597

◆ 수필 같은 '나와 할아버지'

멜로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은 공연대본작가 준희가 전쟁 통에 헤어진 옛 연인을 찾는 외할아버지와 동행하는 내용을 현실적인 대사로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작·연출을 맡은 민준호의 실제 이야기로, 마치 한 편의 수필을 읽어 내려가듯 진술한 무대가 꾸며진다. 2013년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 초연하며 관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승욱·오용·이희준·홍우진·오의식·양경원 등이 출연한다. 8월 2일까지 대학로 예그린씨어터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 744-4331

◆ 7년만의 무대 '잘자요, 엄마'

자살을 결심한 딸과 그 딸의 선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엄마의 하룻밤 이야기라는 다소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1982년 오프브로드웨이 초연에 이어 1983년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1987년 한국 초연 당시 박정자·손숙·윤석화 등이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7년만에 다시 무대에 올려지는 이번 공연에는 김용림·나문희가 엄마 델마 역으로, 연극배우 이지하·염혜란이 딸 제씨 역을 맡는다. 대학로 아트원씨어터에서 3일 개막해 8월 16일까지 공연한다. 문의: 02) 766-6506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주말 TV 하이라이트



태풍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사투

◆ SBS '정글의법칙 in 얍' 금요일 오후 10시

태풍 생존에 도전한 병만족의 모습이 공개된다.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로 모든 도로가 폐쇄되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병만족은 태풍의 중심에서 벗어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지를 발휘해 태풍에 맞선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토요일 오후 9시 50분

알베르토와 유세윤, 마크 테토, 장위안, 다니엘 린데만, 제임스 후퍼, 로빈 등 친구들이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진다.



◆ KBS2 '오렌지 마말레이드' 금요일 오후 10시

재민은 뱀파이어에게 물려 괴로워하는 시후를 구하기 위해 피 공포증이 있음에도 흡혈귀들과 대적한다. 그러나 시후는 뱀파이어로 변해 재민을 오히려 공격한다.



◆ SBS '너를 사랑한 시간' 토요일 오후 10시

'하나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 하나의 친구들은 몰래 원과 자리를 만든다. 그러나 하나와 원은 그 자리에서도 티격태격 다투고 만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일 (토)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국악한마당 14시 45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식 하이라이트 16시 10 징비록 (40회) (재) 18시 00 동행 19시 10 해양 다큐멘터리 샤크 20시 00 8.15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1시 40 징비록 (41회) 0시 00 콘서트 7080	11시 20 우리동네 예체능 (재) 12시 40 개그 콘서트 (재) 14시 15 슈퍼맨이 돌아왔다 (재) 17시 5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39회) 21시 15 연예가 중계 22시 45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23시 0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회) (재)	12시 10 무한도전 스페셜 15시 45 쇼! 음악중심 16시 55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5 무한도전 (435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23회) 22시 00 여왕의 꽃 (33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4시 20 너를 사랑한 시간 (2회) (재) 15시 40 아빠를 부탁해 (재)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3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24시 10 심야식당 (1·2회)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오세득의 이 맛에 반하다> (종합1~5)(재)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7시 50 장학퀴즈 (960회) 18시 40 한국기행 (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데드 맨 워킹>	11시 30 비정상회담 (52회) 13시 20 사랑하는 은동아 (11회) (재) 15시 55 냉장고를 부탁해 (33·24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사랑하는 은동아 (12회) 21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2회) 23시 00 엄마가 보고있다 (11회) 0시 2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9회)

5일 (일)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8회) 16시 10 징비록 (41회) (재) 17시 40 동물의 왕국 18시 00 열린 음악회 21시 40 징비록 (40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4시 0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하이라이트	13시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48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40회) 21시 20 개그 콘서트 (803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오렌지 마말레이드 (9회)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23·24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24회) 22시 00 여왕의 꽃 (34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경찰청 사람들 2015 (재)	12시 10 너를 사랑한 시간 (3회) (재) 13시 15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4회) 0시 10 너를 사랑한 시간 (4회) (재)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그린 카드>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초록 물고기>	13시 20 썰전 (122회) (재) 14시 40 비정상회담 (52회) (재) 16시 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2회) (재) 17시 25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9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닥터의 승부 (182회) 21시 50 김제동의 톡투유 (10회) 23시 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회)

‘공에 맞았다 vs 아니다’… 벤치클리어링까지

스포츠 주간 해프닝

1일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잠실 라이벌전’ 도중 양 팀 모든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벤치클리어링 상황이 벌어졌다. LG 선발투수 우규민과 두산 타자 오재원이 시작한 말다툼이 양팀 선수들의 신경전으로 번진 것이다.

3-3으로 맞선 3회말 오재원은 우규민과 풀카운트까지 맞서다가 볼넷으로 출루했다. 우규민의 마지막 공은 오재원의 머리 위로 아슬하게 지나쳤다.

오재원은 1루로 걸어가면서 우규민에게 항의하듯 ‘공에 스쳤다’고 어필했다. 그러나 우규민은 오재원이 공에 맞지 않았다고 맞섰다.

말다툼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우규민은 1루쪽으로 다가왔고 오재원은 분을 참지 못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양팀 벤치는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뛰쳐나와 사태를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료들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맞았다’, ‘안 맞았다’라며 말다툼을 반복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두산 오재원, 30일 넥센과 삼성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자 넥센 김하성이 우천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 27일 열린 LG와 NC경기에서 박용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SPOTV 제공

목동구장이 워터파크로

목동구장에서 시원한 워터 슬라이드쇼가 펼쳐졌다. 30일 서울 목동구장에서는 홈팀 넥센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1회초를 넘기지 못하고 우천 취소되고 말았다. 홈팀 넥센 선수들은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을 위해 경기장에 천을 깔기 시작했다. ‘우천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서였다. 선수들은 차례대로 나와 빗속에서 슬라이딩을 선보였다. 이날의 베스트 세리머니는 김하성의 몫이었다. 그는 몸을 아끼지 않는 화끈한 세리머니로 경기장을 가로지를 듯한 슬라이딩 실력을 뽐냈다.

자신 응원 현수막 “치워달라”

LG의 베테랑 박용택이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을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용택은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시즌 10차전 경기에서 2회말 2사에 타석에 나섰다. 그러나 갑자기 타임을 선언하고 심판에게 외야를 가리키며 뭔가를 요청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가 가리킨 외야에는 ‘LG의 심장 박용택’이라는 응원문구가 적힌 거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박용택은 그 현수막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와 집중을 방해한다고 심판에게 어필한 것이다. 결국 현수막은 곧바로 거둬졌다. 그러나 박용택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겨를도 없이 1루에 있던 박지규의 도루 실패로 인해 곧바로 더그아웃에 돌아와야 했다.

방송먹통에 노트북 맹활약

올 시즌부터 도입한 합의판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방송장비가 먹통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NC다이노스의 경기에서 운영진의 케이블 방송에 장애가 발생했다. LG측은 케이블 방송국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때문에 이날 경기 중 심판 합의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TV화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심판들은 합의판정시 방송사 중계화면을 사용한다.

심판들은 대신 인터넷 경기 중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덕분에 이날 심판석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놓였다. 당장 2회말 LG 박용택의 출루에 대한 합의판정 과정에서도 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했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추신수, 3경기 연속 홈런포 가동

강정호는 벤치 지켜… 피츠버그 2연승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가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캠든야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첫 타석인 0-0으로 맞선 3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 홈런을 쳤다.

대만 출신 볼티모어 선발투수 천웨인을 상대로 1볼-2스트라이크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시속 약 150㎞ 직구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3m의 시즌 11호 홈런이었다. 이날 3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을 기록했고 시즌 타율은 0.232에서 0.233으로 조금 올랐다.

추신수는 이번 볼티모어와의 4연전 중 1~3차전에서 모두 홈런을 터트리며 타격감을 이었다. 1차전에선 솔로포로 메이저리그 개인통산 500타점을 채웠고, 2차전에선 4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 기록을 세웠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7회말 볼티모어의 J.J 하디에게 2점포를 얻어맞아 2-4로 역전패를 당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인터리그 원정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다. 피츠버그는 선발 A.J. 버넷의 7이닝 7안타 2실점 호투 속에 홈런 4방을 포함해 장단 21안타를 퍼부어 9-3으로 승리하고 2연승을 달렸다. /하희철기자



2일(한국시간) 미국 볼티모어 캠든야드에서 열린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홈런을 쳐낸 뒤 베이스를 돌고 있는 텍사스의 추신수. /AFP 연합뉴스

272개 金 놓고 12일간 열전 돌입

광주 하계U대회 개막

‘창조의 빛, 미래의 빛’ 주제 150개국 1만3000여명 참석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하계유니버시아드는 17세 이상 28세 이하 전 세계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스포츠와 문화로 하나가 되는 대축제이다. 광주 대회의 슬로건은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이다.

이번 대회는 약 150개국에서 1만3000 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해 14일까지 총 21개 종목에서 금메달 272개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한국에서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되는 것은 1997년 무주 동계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대회에 이어 세 번째다.

개막식은 ‘빛고을’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답게 ‘젊음이 미래의 빛이다(U are Shining)’라는 주제로 오후 7시부터 약 200분간 진행된다. 이날 풍물놀이패와 세계 젊음 ‘퍼포머’의 합주로 식전행사가 시작되고 태초 빛의 탄생과 젊음의 충돌을 표현한 신비한 분위기의 공연으로 개막식 초반이 장식된다. 이어 전 세계 젊은이들과 관람객이 흥겹게 어우러지는 선수단 입장 순서가 진행되고 과거 청년들의 배움, 문명의 발전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과정을 전달하는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우게 된다. /하희철기자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오전 광주여대에서 대한민국 양궁 간판스타 기보배가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왼쪽)으로부터 성화를 이어 받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 김민하, 손목골절… 2~3개월 재활 필요

롯데 자이언츠의 외야수 김민하(26·사진)가 정밀 검진에서도 왼쪽 손목 골절 판정을 받았다.

재활에만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민하는 시즌 후반에나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하는 지난 1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치러진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초 NC의 여섯 번째 투수 최금강의 몸쪽 139㎞짜리 공에 왼쪽 손목 부위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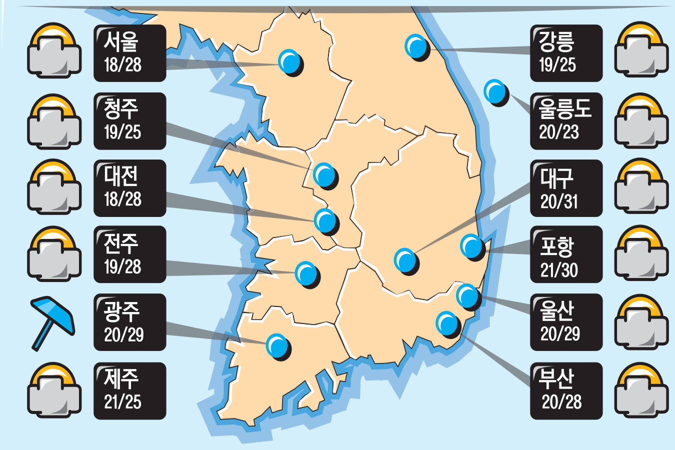
배트가 나오는 과정에서 정통으로 맞은 것이라 충격은 컸다. 그라운드에 한동안 드러누워 고통을 호소한 김민하는 큰 부상이 우려됐지만 공수교대 후 압박붕대를 손목에 감는 투혼을 발휘하며 수비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이내 스스로 뛰기 어렵다는 신호를 벤치에 보내고 교체됐다. 병원으로 이동한 김민하는 1차 검진에서 골절 소견을 받았고, 이날 정밀 검진 결과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민준기자 mjkim@

날씨

7/3 금 일출시각 05:15 일몰시각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9	4	8	1	
		8	7				3	
		3					2	
	1				7	9		
	6			8		7	5	1
	8			2	9			
	3	7	4		1			
2					8			5

		5		8		2		
	6		1	5	9		3	
8								6
	4		7		5		2	
5	2						4	7
	7		4		8		5	
3								4
	9		5	3	1		8	
		2		6		3		

스도쿠 정답

1	7	4	8	3	6	5	9	2
3	2	6	5	9	4	8	1	7
9	5	8	7	1	2	4	3	6
7	9	3	1	4	5	6	2	8
8	1	5	2	6	7	9	4	3
4	6	2	9	8	3	7	5	1
5	8	1	6	2	9	3	7	4
6	3	7	4	5	1	2	8	9
2	4	9	3	7	8	1	6	5

4	3	5	6	8	7	2	9	1
2	6	7	1	5	9	4	3	8
8	1	9	2	4	3	5	7	6
9	4	6	7	1	5	8	2	3
5	2	8	3	9	6	1	4	7
1	7	3	4	2	8	6	5	9
3	5	1	8	7	2	9	6	4
6	9	4	5	3	1	7	8	2
7	8	2	9	6	4	3	1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Korea Advertisers Association Quasi Press False Evaluation Result

<광고주협회 사이비언론 조사결과 왜곡>

Korea Advertisers Association which is under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pointed Metro Press as the Quasi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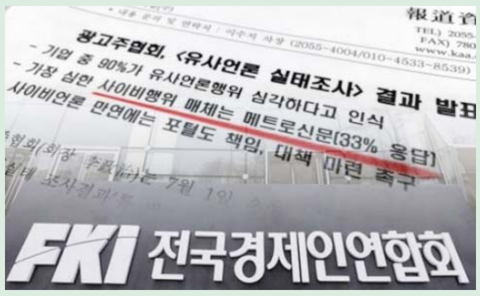
This was due to the survey result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advertisement officials. But the Korea Research which initiated investigation has stated that the reports made by the advertisement officials are different from the fact.

The Korea Research which has done the evaluation, has stated that it is biased to claim the Metro Press 'Quasi' when they have not mentioned anything about it in their surveys.

전경련 예하 조직인 한국광고주협회가 가장 심각한 유사언론 행위를 저지르는 사이비 언론으로 메트로신문을 지목했다.

기업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가 근거였다. 하지만 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는 조사내용이 광고주협회의 발표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조사를 직접 실시한 한국리서치 담당자는 "기업들에게 어떤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직접 적게 하면서 유사언론행위나 사이비언론이라는 말은 전혀 질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런 내용을 넣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1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사진합성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동통신 대리점 하려는데 잘 될까요? 마트에서 유통일 배우는게 더 적합

성공남1호 남자 73년 11월 23일 양력 점심때

Q 경기가 불황으로 연속되는 시점에 경제성장률도 둔화가 되고 있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복지부동은 할 수가 없고 뭔가는 해야 하는데 잘 될 사주팔자인지 궁금하여 상담의뢰를 합니다. 핸드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누구나 쓰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지원을 해줘 모든 국민들이 알뜰하게 값싸게 이용토록 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알뜰폰 대리점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안정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으며 주변에서 욕 안 먹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 좋다고 하지만 그것에 부응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보는데 과연 제가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요.

A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생활의 편리함과 생활양식도 바뀌게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전 세계를 일일생활권으로 바꿔 놓았지만 순 작용과 역작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익도 발생하겠으나 고통의 원인도 함께 작용될 것입니다. 경기가 불황이니 알뜰 폰보다도 공짜 폰도 있을 것이니 수익성이 있을 리 만무입니다. 무엇을 할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생각하는 일은 신속히 접고 마트에 취직을 하여 유통관계 일을 배우면서 발전을 기약하십시오. 귀하는 '바다물이 가득하여 마르지 않는 형상'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앞날을 예지하는 혜안이 있어 천재적인 두뇌가 작동합니다. 음력10월생 해중(亥中) 갑목(甲木)이라는 도와주는 오행이 있으므로 사주기운이 서로 상생(相生)하여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하므로 이를 주류무체(周流無滯:막힘이 없이 잘 흘러가는 길함)라고 합니다. 식신이라는 오행이 재물을 생하는 식신생재(食神生財)와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는 재생관(財生官)하고 있으며 운에서 좋은 기운으로 가고 있으므로 45세부터 귀하를 받쳐주니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실함으로 인해 이뤄지는 인연이라 그 인연으로 인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간에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으니 포부를 조금은 크게 가져보십시오. 천복지재(天復地載:천간으로 덮어주고 지지로 실어준다는 뜻)즉 천복은 천간이 지지를 생해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지재는 지지가 천간을 생해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운에서도 도움이 있게 되니 늦다고 생각 말고 유통업을 배우십시오. 재물이 들어오기까지는 시련이 있어도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3일 (음 5월 18일)

쥐 — **48년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길합니다. **60년생** 행운이 굴러 들어옵니다. **72년생**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84년생** 용기를 내어 추진하세요.

소 — **49년생** 여행을 계획중이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61년생** 일에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73년생** 길을 다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85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호랑이 — **50년생**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할것입니다. **62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74년생** 중심을 잡고 일에 집중하세요. **86년생** 늘 올바른 자세로 매사에 임하세요.

토끼 — **51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합니다. **63년생** 조금만 참아으세요. **75년생**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87년생** 부와 명예의 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용 — **52년생**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더 큰 이득이 보입니다. **64년생** 금전운이 불리합니다. **76년생** 오늘은 근신할 때 입니다. **88년생** 유흥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뱀 — **53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77년생**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89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말 — **54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일이 길합니다. **66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8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0년생**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양 — **55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입니다. **67년생** 낫 들고 기역 자도 모릅니다. **79년생**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식들의 도리입니다. **91년생** 생식을 삼가하세요.

원숭이 — **56년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68년생** 재물을 다투는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80년생** 칭찬 또는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닭 — **57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69년생** 바른 마음 가짐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81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93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개 — **58년생**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70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82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94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돼지 — **59년생**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71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83년생** 귀하의 약점이 들어날 수 있습니다. **95년생** 가는 곳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U대회 성공 개최로 '메르스 한국' 시선 바뀌었으면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전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3일 드디어 빛고을 광주에서 개막합니다.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슬로건으로 내건 광주U대회는 150개국에서 1만3000 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각국 선수들은 총 21개 종목에서 금메달 272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한국은 금메달 2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3위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종목에 선수 382명과 경기임원 97명, 본부임원 37명 등 총 516명의 선수단을 내보냈습니다.

이번 광주U대회에서 한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종합 3위 성적을 내는 것보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는 것입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국제대회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메르스에 대응해 공중보건·검역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대회 참가자들에게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문진을 하고,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여행지역과 시기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수시로 검사와 검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감염병 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진단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환자와 병원균 보유자는 격리 치료합니다. 확진되기 전 의심환자는 지정된 장소로 격리되고, 환자와 병원균 보유자,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일정한 장소에서 의료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직위는 손 소독제와 물비누, 일회용 마스크, 비접촉 체온계 등 위생용품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visitkorea.or.kr'에서 메르스에 대한 유의사항을 24시간 공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메르스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경우 관광안내전화(1330)를 통해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인근 병원과 보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광주U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 시민들은 2년 넘게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U대회 유치 서명운동을 펼쳤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들을 반기고 환영했습니다.

광주U대회에 세계 각국 선수단과 임원들만이 아닌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광주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을 기피 국가로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선이 바뀌기를 고대합니다. 발길을 뚝 끊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번 광주U대회를 계기로 다시 한국으로 발길을 돌렸으면 합니다.

흔들리는 中 증시, 폭락 가능성 대비해야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부 기자>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 대표 주가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신나게 올라 지난달 12일 5166.35까지 찍었으나, 이후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주 동안 약 20%나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도 하루에 반등과 반전이 반복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30일에는 장중 한때 4000선이 붕괴됐다가 중국정부의 부양 조치에 5.53%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1일에는 다시 투자자들이 부채 비율 조정에 나서며 급등 하루 만에 다시 5.23% 하락으로 마쳤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5.23% 폭락한 4053.70, 선전성분지수는 4.79% 추락한 1만3650.82에 각각 마감됐다.

두 지수는 모두 전날 폭등 부담에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듯했으나, 장 막판에 폭락세를 보였다. 상하이 지수는 4100선이 쉽게 내준 뒤 4000선으로 추락했다. 현재 4000선도 위태로운 상태다. 일각에서는 지수가 3500선까지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증시의 거품이 꺼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면서 불안한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증시 띄우기로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시켜 부채 위험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가 고평가와 신용잔고 급증이란 문제가 나타나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증시의 급락은 한국 경제엔 그리스 사태보다 더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메르스 여파로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마저 무너진다면 그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내 주식거래활동계좌 수는 2100만개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 주식거래활동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고,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거래한 증권계좌를 의미한다. 투자자 예탁금도 21조8077억원으로 연초 이후 5조6664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는 다시 말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참여가 활발하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 증시 폭락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외환·증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중국 증시의 위기,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인사

■ 교육부

△서기관 ▷장관실 김진형 ▷교육부 최흥윤 ▷대변인실 김형기 ▷기획조정실 연장흠 ▷기획조정실 최윤정 ▷기획조정실 노진영 ▷감사관실 최훈 ▷운영지원과 조훈희 ▷대학정책실 이상범 ▷대학정책실 박찬호 ▷대학정책실 차영아 ▷지방교육지원국 박광원 ▷학교정책실 서혜숙 ▷학술원사무국 정현욱 ▷강릉원주대학교 박정호 ▷강원대학교 박조남 ▷공주대학교 박근배 ▷부산대학교 유병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병희 ▷창원대학교 장영오 ▷충남대학교 심성석 ▷한국교원대학교 조영택 ▷한국교통대학교 염영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효신 ▷한밭대학교 박기원 ▷청주교육대학교 총무과장 이석현 ▷진주교육대학교 총무과장 손윤선 ▷부경대학교 이대영 ▷한국해양대학교 한위전 ▷강원대학교 산학연구기획과장 허인의 ▷부산대학교 미래전략실장 권재희 ▷전북대학교 입학관리과장 정회인 ▷제주대학교 재정과장 고봉권 ▷충북대학교 입학과장 박미환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실장급 전보 ▷대체투자실장 유상현 ▷투자자산사후관리강화추진단장 윤영목 △팀장급 전보 ▷주식운용실 패시브팀장 민정기 ▷대체투자실 기업투자팀장 김재범 ▷해외대체실 해외부동산팀장 김현수 ▷리스크관리센터 리스크관리팀장 신승엽

■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임병숙 ▷대전지방기상청장 임용한 ▷기상레이더센터장 전준모 ▷대변인 정현숙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관광레저정책관실 관광개발지원과장 이성선 ▷국립현대미술관(과장직위) 배종민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유은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정세웅 ▷국민대통합위원회 파견 최재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단장급 전보 ▷경영지원단장 정현철 ▷정책연구단장 김주영 ▷개인정보안전단장 권현준 △단장급 승진 ▷보안산업단장 겸 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장 손경호 ▷침해사고분석단장 신대규 △팀장급 전보 ▷전략기획팀장 오동환 ▷사업협력팀장 허해녕 ▷운영지원팀장 김미현 ▷정책협력기획팀장 오용석 ▷보안산업정책팀장 이용필 ▷융합보안산업팀장 백종현 ▷스팸대응팀장 박해룡 ▷개인정보침해대응팀장 윤석웅 ▷종합상황팀장 박진완 ▷종합분석팀장 이동근 ▷분석1팀장 임진수 ▷분석2팀장 박순태 ▷기반보호팀장 박창열 ▷정보보안운영팀장 황보성 ▷경영분석반장 김성한 △팀장급 승진 ▷보안산업지원팀장 이성재 ▷침해대응기획팀장 최광희 ▷사이버사기대응팀장 지승구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지원위원회

▷사무국 기획총괄과장 김경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승진 ▷성과확산부장 임흥섭

■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 ▷혈관연구단 단장 고규영 △부연구단장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부연구단장 이효철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부연구단장 조문호

■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 박승현 ▷정책기획팀장 김영환 ▷고객지원팀장 강동훈 ▷사업추진단장 정종철 ▷삼청각사업TF팀장 문경아 ▷북서울사업TF팀장 김주석 ▷예술교육·축제팀장 문정수 ▷전시·디자인팀장 임연숙 ▷홍보마케팅팀장 어연선 ▷국악단운영팀장 박현석

■ KB생명 △임원 전보 ▷영업3본부장 유재준 ▷영업지원본부장 이호주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 보상책은?

생활 법률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기쁜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막상 아파트가 계약 조건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실제 계약에 명시된 평수보다 공간이 더 좁거나 계약일이 다르거나, 입주금 납부 시기에 차이가 나는 등 여러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을 자세히 체크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이 중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에 명시된 자재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완공후 실제 자재나 견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는 계약 내용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적 구제를 원하는 분양계약자에게 이 내용을 증명해야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과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이 포함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은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있다.

담보책임은 분양계약 당시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가 그 부분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분양규정이다.

또 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홍원기자 hong@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허니문 주말 상담회



예비 신랑 ♥ 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픈**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상담회 특전 |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❶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커플당) ※일부상품 제외
❷ 현장 예약시 **토스터기+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카드** 증정

소개 이벤트 | 결혼을 준비하시는 지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예약 성사시 소개시켜 주신 분께는 **5만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과
예약하신 커플께 **5만원 하나투어리스트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허니문 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동일혜택 적용)
사전 온라인 신청 필수 http://me2.do/FegLcydp
※ 소개이벤트 신청 후 주말상담회 참여 시 두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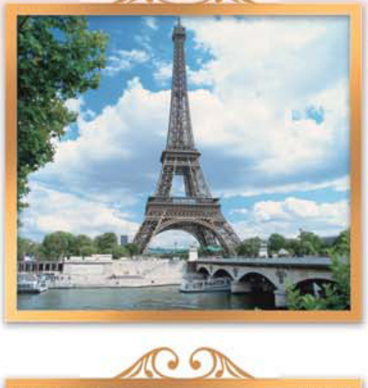


01 발리 6일

푸리 2박+불가리 오션뷰 2박

1,831,1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9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 발리(4) ● 9월 한정특가
- 빌라 내 레스토랑 디너 1회와 런치세트 포함
- 발리 문화 체험 및 우붓 관광, 시내관광 포함
- 푸리 누사두아 디럭스룸 2박+불가리 원베드 오션뷰 풀빌라 2박
- 4회 마사지 포함
  - 아로마 오일 마사지, 초코렛 스파 2회, 황실 전통 지압 마사지



02 파리/스위스 7일/8일

대한항공 좌석확보

3,269,8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9월~11월 매주 일, 월요일 출발

- 파리(3)-인터라켄(2)-취리히(1/0) ● 2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파리 시내 인기호텔! NOVOTEL TOUR EIFFEL 호텔 확정
- 경력 5년이상의 스타가이드와 함께 관광(파리 1일+스위스 2일)
- 한국인 가이드의 편안한 공항↔미팅&샌딩서비스 포함
- 에펠탑 조망 56층 높이 파리 빌딩 특식
- 하나투어 전용 테이블 스위스 특식
- 리얼 야경! 20시이후 야경투어+대표 옵션 세느강 유람선 포함



03 오아후 6일/7일

쉐라톤 와이키키

2,792,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7월 4일~12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 오아후(4) ● 와이켈레 아울렛 포함한 동부해안 섬일주
- 대한항공 이용시 쉐라톤 와이키키 전박 킹베드 개런티
- 사전 예약할인-커플당 120일전 40만원/90일전 30만원/60일전 20만원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1인요금으로 동반자 무료혜택
- 현지 하나투어 투어라운지 운영
  - 위급시 도움요청, 와이파이에그 대여, 할인쿠폰, 현지정보 제공 등
- 특식:메리엇 와이키키 호텔 내 쿠히오그릴뷔페 디너, 카후쿠새우트럭, 씨푸드뷔페 포함



04 푸껫 ★ 신부무료 6일

마이카오드림 나타이 풀테라스 풀스윗(2+2)

1,700,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9월~12월 14일 매주 토, 일요일 출발

- 푸껫(4) ● 로맨틱 요트투어 & VOD촬영 포함
- 마이카오드림 나타이 리조트 스파 90분 체험
- 캐리어 랩핑 서비스(커플당 1개)
- 데이터 무제한 7일 USIM카드(커플당 1개 제공)
- 리조트 선셋 디너 1회 포함, 아프로디테쇼 관람

☎ 예약문의 **02)2127-1234**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있음/없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보단계** :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6.19. 업데이트 기준) ●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